

韓日 兩民族의 漢字·漢文의 受容과 發展에 관한 比較研究 [Ⅱ]

梁 重 海*

目 次

- I. 序論
- II. 漢字·漢文 傳來의 史的 資料
- III. 漢字·漢文 傳來의 金石學的 資料
- IV. 漢字·漢文 傳來의 結論(以上 前回分)
- V. 漢字·漢文 受容의 諸段階
 - A. 漢字의 字形을 變更하지 않고 使用하는 段階
 - B. 새로운 漢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 C. 漢字를 變形 또는 縮約하여 表音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 D. 다른 系統의 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 VI. 結論

V. 漢字·漢文 受容의 諸段階

韓日 兩民族의 漢字·漢文의 受容과 發展에 관한 問題를 比較 考察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論議의 範圍에서 兩民族의 漢文學에 관한 問題는 除外하기로 한다. 곧 本論考에 있어서의 考察의 對象은 國語의 表記史를 中心으로 한 兩民族의 漢字·漢文의 受容과 發展에 관한 諸段階인 것이다.

* 師範大學 教授

漢字文化圈에 屬하고 있는 韓民族과 日本民族이 새로 輸入한 漢字에 대하여 어떻게 對應하고 어떻게 受容하고 있는가를 몇 段階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漢字의 字形을 變更하지 않고 그대로 使用하는 段階, 둘째, 새로운 漢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셋째, 漢字를 變形, 또는 縮約하여 새로 音節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넷째, 漢字를 버리고 다른 系統의 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이렇게 몇몇 段階로 나누어 考察해 볼 수 있다. 이 네 段階를 다시 細分하여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¹⁾

漢字 受容의 諸段階

A. 漢字의 字形을 變更하지 않고 使用하는 段階

1. 漢字를 音讀만 하고 原義를 理解한다.
2. 漢字·漢文으로 思想 感情을 表現한다.
3. 固有名詞의 表記에서 漢字에 의한 土語의 表音化 表記가 始作된다.
4. 土語의 語順에 따른 漢字文은 만든다.
5. 漢字를 音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使用하여 土語를 表記한다.
6. 漢字를 音으로 읽고 그 原義를 理解한다.
7. 漢字를 訓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使用하여 土語를 表記한다.
8. 漢字를 借用하여 土語의 關係詞 등을 表記한다.
9. 漢字의 音讀·訓讀·音借·訓借 등으로 土語의 노래를 表記한다.

B. 새로운 漢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10. 漢字를 變形 改造한다.
11. 漢字의 構成原理를 利用하여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 낸다.

C. 漢字를 變形 또는 縮約하여 表音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12. 口訣과 그 略體 및 發展의 限界
13. 日本의 訓點과 <가나>(假名)

D. 다른 系統의 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14. 漢字와 關聯이 없는 音韻文字를 만들어 낸다.

1) 黃浪江外, “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產業社, 1982), p.176參照.
市古貞治, “日本文學全史”(學燈社, 1980), p.49參照.

여기에 表示된 A, B, C, D의 各段階나, 1, 2, 3……등의 順序가 그대로 時代的 先後關係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漢字文化圈인 韓日 두 地域에 있어서의 漢字와의 對應 및 受容의 樣態는 大體로 이러한 段階를 밟았던 것으로 보고 檢討해 보고자 한다.

A. 漢字의 字形을 變形하지 않고 使用하는 段階

漢字를 受容하고 이를 實用하는 過程에서 多劃의 漢字는 劃數를 縮約하여 略字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漢字의 製作原理에 의하여 없는 漢字를 만들어 國字로 使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段階는 漢字의 字形을 變形하지 않은 채 土語를 表記하기 위하여 漢字의 讀法과 表記法을 여러가지로 試圖해 본 段階라 하겠다.

1. 漢字를 音讀만 하고 그 原義를 理解한다.

漢字는 字形과 字音이라는 두 가지가 한 單位로 되어 輸入되었다. 다시 말하면 意味를 나타내는 字形과 그 音聲的 表現 形態인 字音이 漢字 하나하나에 짝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漢字의 二重性이다.²⁾

韓語나 日語가 共히 漢語와의 隔絶이 크기 때문에 輸入 初期에는 訓讀하거나 作文하는 일은 없고 오직 音讀만을 하고 그 漢字 漢文의 元뜻을 理解하기만 하던 段階가 있었음을 想定할 수 있다.

韓族이나 日本民族이 漢字의 輸入 初期에는 오직 音讀만을 하였다면 어떤 音으로 읽었을까.

韓土에 漢字가 들어와서 實用된 것이 三國 初期 以前이었을 것이므로 그 當時의 漢字音을 밝혀낼 수는 없다. 韓土 漢字音의 起源에 關係서는 Maspero, 有坂秀世, 河野六郎 등 三氏의 說이 있다.

Maspero의 所論은 다음과 같다.³⁾

- (1) 新羅에는 5世紀末頃 南方字音(吳方音)이 傳해졌다.
- (2) (a) 高句麗에는 北方字音이 傳해졌다.
(b) 그리고 唐의 高句麗 討滅後에 唐代의 字音이 採用되었다.
- (3) 高麗 滅亡까지 南方子音(新羅字音)과 北方子音(高麗字音)이 併存했다.
- (4) (a) 그러나 李氏朝鮮에 이르러 新羅字音(南方字音)이 勝利했다.
(b) 따라서 現在의 字音의 根底는 南方字音인 것이다.
- (5) 다만 北方字音의 영향도 있다.

이 밖에 有坂秀世의 說, 河野六郎의 說이 있으나 有坂는 朝鮮 字音의 宋代 開封音說을 主張하고 있으며, 河野는 唐代 長安音의 基礎 위에 近世音的 層이 곳곳에 덮여 있음을 主張하고 있음을 본다.

2) “口訣의 生成과 變遷에 對하여”(韓國學報 I, 一志社, 1975, 겨울, 創刊號) p. 7.

3) 河野六郎, “朝鮮漢字音의 研究”(日本·天理時報社, 1969), pp. 7~14.

이 問題에 對하여 朴炳采는⁴⁾

韓國漢字音의 主流를 形成하는 基層은 隋·唐初의 切韻音⁵⁾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더러는 보다 古層이 곳곳에 깔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切韻音보다 통합화된 唐代 慧琳音⁶⁾의 반영도 생각할 수 있으며, 보다 후기적인 開封音⁷⁾의 要素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基層으로 強力히 반영된 것은 隋·唐初의 切韻音인 北方 中原音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所論이 韓土에 輸入된 初期의 漢字音이 어떤 音인지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現代音에 系統이 이어지는 傳統的 韓國 漢字音은 新羅統一以後의 唐代의 字音을 모델로 하여 形成되었을 것으로 推定⁷⁾은 되지만, 韓土 漢字 輸入의 初期를 箕子朝鮮→衛滿朝鮮→漢四郡→高句麗→統一新羅로 볼 수 있다면 韓土의 輸入 初期의 漢字音은 北方音일 것으로 推定하지 않을 수 없다.

李朝初 訓民正音を 創製한 世宗大王과 世宗大王의 訓民正音 創製 事業을 보필한 學者들이 당시의 朝鮮 漢字音을 분석해 보았더니 中國의 音韻體系로 보아 너무나 混亂이 甚하다고 判斷되어, 朝鮮漢字音을 整理하는 事業을 進行시켰던 것인데, 그 結果로 世宗29年(1447AD)에 이루어진 韻書가 「東國正韻」인 것이다. 그러나 이 「東國正韻」은 당시의 現實 漢字音과는 乖離가 컸기 때문에 그다지 採擇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南廣祐의 分期法에 따라 朝鮮朝時代의 漢字音을 三期로 나누어 보면, 第一期는 東國正韻式 漢字音이 使用되었던 時期, 第二期는 東國正韻式 漢字音이 폐기되었으므로, 傍點이 찍히고 아직도 △으로 表記된 漢字音이 存在하던 時期, 第三期는 그 뒤, 곧 壬亂以後에서 朝鮮朝末까지로 잡고 各期마다 몇몇 漢字音을 摘出하여 이의 各 時期別의 差異와 이를 다시 日本의 오늘의 現實 漢字音과 對比시키고 있는 바, 그 몇몇 例字를 뽑아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

4) 朴炳采, “국어한자음의 모태론”(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p. 299.

5) 隋의 天下統一로 押韻규범이 요망됨에 따라 581~601년에 完成된 韻書. 後에 계속 이 切韻의 證보가 있었고, 「大宋重修廣韻」으로 集약됨. 切韻의 音系는 대체로 長安·洛陽·南京音說등이 있으며, 또 南北 절충이라는 說도 있음.

6) 唐中葉以後 西北 中國音으로 대표되는 慧琳의 「一切經音義」의 反切의 音. 慧琳은 820AD에 沒함.

7) 黃浪江外, 前掲書, p. 172.

8) 南廣祐, “朝鮮(李朝) 漢字音研究”(一潮閣, 1977), pp. 141~142.

母音	漢字	東漢音	第二期以後	日漢字音
	界·戒·階	ㅁ	ㅁ	かい (kai)
	泥	ㄷ	ㅣ	でい (dei)
	賴	ㅁ	ㄷ	らい (rai)
	魅	ㅣ	ㅣ	み (mi)
	迷·米	ㅁ	ㅣ	めい (mei)
	矛	ㅍ	ㅍ	まい (mai)
	盆	ㅍ	ㅍ	む (mu)
	兒	ㅣ	ㅍ	ほん (bon)
			ㅍ	じ (ji)

子音	漢字	東漢音	第二期以後	日漢字音
	嗜	ㅍ	ㄷ	し (si)
	恬	ㅍ	ㄷ	てん (ten)
	拈	ㄷ	ㅍ	とん (ton)
	灣	ㅍ	ㅍ	でん (den)
	歐·謳	ㅍ	ㅍ	わん (wan)
			ㅍ	おう (ou)

이 圖表에서 볼 때 朝鮮朝 사이에도 漢字音은 꾸준히 變化를 거듭하였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日漢字音이 比較的 擬古의 음을 볼 수가 있다. 그 뒤 第二期(李朝初-壬亂)에서 第三期(壬亂-朝鮮末)로 넘어가는 동안의 △音의 脫落現象과 口蓋音化 現象에서도 日漢字音에서는 古形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

△音脫落	漢字	第二期音	第三期以後	日漢字音
	兒	ㄷ ㄷ	아	じ (ji)
	弱	약	약	じゃく (jak)
	讓	양	양	じょう (jou)
	若	약	약	じゃく (jak)
	染	염	염	ぜん (jen)
	儒	유	유	じゆ (ju)
	人	인	인	じん (jin)

口蓋音化	漢字	東漢音	第二期以後	日漢字音
	抵·低·底	더	저	てい (tei)
	適·敵·的	덕	적	てき (teki)
	挺·丁·定	딩	정	てい (tei)

9) 上掲書, pp. 84~86參照.

日本の漢字音에는 吳音·漢音·唐音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¹⁰⁾ 日本에 漢字가 輸入된 것은 四世紀末에서 五世紀初로 보겠으나¹¹⁾ 日本에로의 漢字의 傳來가 百濟를 通하여 이루어졌다는 데서 日本 最初の 漢字音에 關한 論議로는 華音直讀說과 함께 百濟音讀說이 있다.¹²⁾ 「日本書紀通證」에서도

松下氏¹³⁾曰 菟道稚郎子 師王仁 習諸典籍 是漢音之始也

라 하고 다시 註에

今按 阿直岐·王仁 俱百濟人 其國近吳 古事記作阿知吉·和邇 呼其名 既如此 疑其所傳授 亦是吳音

이라고 하였으니, 松下는, 王仁이 菟道稚郎子에게 漢音으로 諸典籍을 가르친 것으로 되고 있으나 事實은 吳音으로 가르쳤음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王仁이 日本으로 漢字·漢文을 傳한 뒤, 天智天皇 二年(663 AD) 百濟를 도와 新羅와 맞서 싸우던 倭의 水軍이 白村江口의 싸움에서 大敗¹⁴⁾하여 本國으로 後退하고 돌아갈 때, 百濟의 上流層 人士들이 大學 日本으로 亡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人士 가운데는 後日 奈良文化에 큰 影響을 끼친 學者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니 日本의 史料에 記錄되고 있는 사람으로는 沙宅紹明(法官大輔), 鬼室集斯(大學頭)를 비롯 谷那晋首, 木素貴子, 憶良福留, 答炆春初(兵法), 鬼室集信, 吉大尙(藥方), 許率母(經學), 牟福牟(陰陽道) 등 外에 많은 名僧들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¹⁵⁾

桓武天皇 即位(781 AD)로부터 源賴朝가 幕府를 시작할 때(1192 AD)까지의 約四百年間이 日本 史에서는 平安時代로 불리우고 있다. 桓武天皇 十一年(792 AD)에는 前代의 弊習을 바로잡고, 諸 學士에게 詔書를 내려서 漢音을 學習하도록 했던 記錄이 보이니, 「日本經略」¹⁶⁾에서는

延曆十一年閏十一月辛丑敕 明經之徒 不可習吳音 發聲誦讀 既致訛謬 熟習漢音

이라고 하였다. 唐과의 交通이 頻繁하여 짐에 따라 長安·洛陽方面의 音이 標準音으로 생각되기

10) 上掲書, p. 5.

11) 「日本書紀」에 王仁의 來朝를 記錄하면서, 「是歲百濟阿花王薨云云이 보이는 바, 이 阿花王을 百濟王系中の 阿莘王으로 본다면 阿莘王의 末年(薨年)은 405 AD이다. 斯文會編 「日本漢學年表」에는 王仁의 渡來를 391 AD~413 AD 사이의 未確認 年次에 記入하고 있다. 그러나 王仁의 渡來는 多量의 漢籍의 渡來의 契機일뿐, 日本에로의 漢字의 傳來는 그보다 1·2世紀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2)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角川書店, 1986), p. 25.

13) 松下見林, 1963~1767 AD, 日本의 著名한 漢學者. 斯文會, 「日本漢學年表」(大修館書店, 1979), p. 249 參照.

14) 日本書紀, 天智天皇紀, 二年(癸亥)條.

15) 猪口篤志, 前掲書, p. 49.

16) 上掲書, p. 99.

에 이르러, 當時 紊亂했던 漢字音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類聚國史」¹⁷⁾에는 그 이듬해인 延曆十二年四月二十八日에

自今以後 年分度者 非習漢音 勿令得度

라는 記錄이 보이고, 「日本書紀通證」¹⁸⁾에는 다시

今按世所謂儒典取漢音 佛經取吳音 不必然也

라 하였다. 그래서 이 桓武天皇朝에 佛典은 吳音으로 읽고 漢籍은 漢音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制度로 確立되었던 것이다.¹⁹⁾ 이러한 吳音 漢音의 關係는 現在 古典에서 그 實相을 살펴보면, 거의 同時代에 이루어진 文獻이면서도 「古事記」(712 AD)는 吳音, 「日本書紀」(720 AD)는 漢音·吳音을 混用하고²⁰⁾ 있음은 注目할 만하다.

大野 透는 그의 著 「萬葉假名の 研究—古代日本語の 表記의 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¹⁾

假名の 변천은 古層·中間層·新層의 三層으로 大別하는데, 古層의 假名은 推古期(592~628AD) 이전에 발생한 假名, 新層의 假名은 八世紀(前半)의 長安音에 根據를 두고 發生한 假名, 中間層의 假名은 古層·新層의 假名을 제외한 奈良時代의 假名을 가리킨다. 古層의 假名 一部와 中間層의 假名이 奈良時代의 代表的인 假名인 것이다. 古層의 假名은 推古期 以前에 輸入된 이른바 吳音系統의 字音에 근거를 둔 假名을 主體로 하고 있는 것이었으나, 七世紀의 唐初 北方音에 근거를 둔 假名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吳音系統의 字音뿐 아니라 北方音系字音도 적어도 時代의 變化는 있는 것으로, 古層 中間層의 假名은 물론, 新層의 假名도 均質的인 것이 아닌 것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大野氏의 이 말은 推古朝 以前의 漢字音을 吳音으로 보면서도, 七世紀初의 唐初 北方音도 더러 包含되고 있다는 것이며, 七世紀를 漢音, 八世紀를 唐音(長安音)이라고 圖式化 시키면서도 이 三層이 均質的으로 區分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各其의 要素가 相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日本에 傳來된 初期의 漢字音은 南方音인 吳音系統이라고 함은 前掲 Maspero의 所論과도 相通함을 알 수 있다. 곧 日本 初期의 漢字音은 百濟·新羅의 漢字音인 吳音이었던 것이다. 漸次 漢唐과의 交流가 頻繁하여지고, 留學生 學問僧들의 往來가 增加해짐에 따라, 長安·洛陽方面의 漢音이 標準音처럼 보여지게 됨에 이르면서 다시 漢音 唐音이 漢字音을 支配하게 되

17) 「類聚國史」는 菅原道真編, 二百卷으로 되어 있으나 現在는 六十二卷, 六國史의 內容을 神祇·帝王·後宮等 三부로 나누어 記述한 漢文體 歷史書.

18) 谷川土清, “日本書紀通證”, 卷·叢書

19) 猪口篤志, 前掲書, pp. 99~100.

20) 土掲書, p. 71.

21) 大野 透, “萬葉假名の 研究” (「古代日本語の表記의 研究」, 明治書院, 1962), p. 862.

었다는 것이다.

秋山 虔은 日本의 漢字音이 吳音·漢音·唐音으로 變遷하여 왔음을 解説하고, 現行 國語에도 殘存하고 있는 字音의 實例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圖表를 提示하고 있다.²²⁾

種 類	解 說	實 例
吳 音	六世紀頃 百濟에서 傳해진 南北朝鮮時代의 吳地方(揚子江 下流)의 音. 佛敎音이나 일찌기 日本化한 漢字音.	ぎょう(gjou) きょう(kjou) 修行 經文 みょう(mjou) ず(zu) 燈明 頭脛
漢 音	七世紀以降, 遣唐使나 留學生들에 의하여 傳來된 唐代의 長安·洛陽音. 漢籍을 읽을 때의 音으로, 大部分의 漢字音.	こう(kou) けい(Kei) 孝行 經書 めい(mei) とう(tou) 明白 頭髮
唐(宋)音	十二·三世紀頃 中國으로 건너갔던 禪僧이나 商人들에 의하여 傳來된 唐宋代의 標準音, 禪僧의 經文등에 있는 特殊音.	あん(an) きん(King) 行燈 看經 みん(ming)·じゅう(ju) 明國 禮頭

(羅馬字 發音 表記는 筆者)

2. 漢字·漢文으로 思想 感情을 表現한다.

이 段階는 上述 段階인 漢字를 音讀만 하고 그 原意를 理解하려는 段階에 바로 이어, 어쩌면 거의 그와 同時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韓土에서나 倭土에 있어서 漢字에 接하였을 때, 그것을 먼저 音讀하고 그 뜻을 理解하였다면 바로 다시 스스로 作文하고 싶은 衝動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段階의 作文이란 漢土의 漢文章을 그대로 模倣한 文章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韓化漢文이나 和化漢文과는 區別이 되는 文章形態의 段階인 것이다.

漢字·漢文의 傳來 初期 段階에 있어서는 몇몇 少數의 사람만이 漢字·漢文에 接할 수 있었을 것이며, 時代가 내려와 知識層間에 漢字·漢文이 알려지게 되면서 自己의 思想이나 感情을 漢字·漢文으로 記錄하게 되었을 것으로 想定된다.

韓土에서는 漢四郡時代에 이미 上部 社會에서는 漢字·漢文이 널리 使用되었을 것임을 推定할 수 있고, 高句麗의 경우는 建國初에 이미 上部層에서는 이 漢字·漢文으로 思想 感情을 表現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高句麗 第二代 琉璃王 所作인 「黃鳥歌」는 「歌曰云云」의 記錄으로 보아, 그 原歌는 國語로 된 歌謠였던 것이고, 오늘 「三國史記」所傳의 四言四句의 漢詩는 原歌가 아닌 漢譯詩라고 함이 學界의 定論인 듯하나, 「黃鳥歌」의 原歌가 國語 歌謠나 漢詩歌냐와는 別

22) 秋山 虔, “新編國語使覽”(中央圖書, 1979), p. 336.

問題로 琉璃王 때쯤이면 이만한 漢詩는 나올 만한 일이다.²³⁾

韓土에 있어서의 漢文學의 發達は 地理的 與件으로하여 北部가 빠르고 南部가 後進이었던 것이나, 作漢文의 試圖는 가장 後進인 新羅에 있어서도 三·四世紀末 以降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 그 까닭은 現存 資料만으로도 五世紀初에 이루어진 「廣開土大王陵碑」²⁴⁾ (414 AD), 五世紀 中期에 이루어진 「高句麗城壁石刻銘」²⁵⁾ (446 AD推定) 등의 高句麗의 漢文章, 五世紀 中期에 이루어진 「瑞鳳塚銀台杆銘」²⁶⁾ (451 AD推定) 등의 新羅의 漢文章에는 이미 純漢文이 아닌, 곧 韓土化한 漢文을 發見할 수 있기 때문이다.

日本에 있어서의 이 段階는 百濟의 王仁에 의하여 多量의 漢籍이 傳來된 五世紀初²⁷⁾ 以前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六世紀初 反正天皇²⁸⁾ 때의 遺物로 推定되는 熊本縣 江田町 船山古墳 出土의 太刀의 背面에 銀象嵌으로 彫刻된 銘文에는 이미 純漢文이 아닌 和化漢文의 要素가 나타나 있음으로써로도 推定된다.

3. 固有名詞의 表記에서 漢字에 의한 土語의 表音化 表記가 始作된다.

이 段階는 漢字의 音을 借用하여 事物에 대한 觀念을 表記하는 漢字 借用表記의 第一段階인 音借表記의 段階를 말하는 것이다.

元來 漢字에 의한 土語의 表記에는 두 가지의 方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漢字의 音을 借用한 土語의 表記이며, 다른 하나는 訓의 借用에 의한 土語의 表記인 것이다. 이 두 가지의 方法中 音의 借用이 先行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音借表記中에서도 早期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固有名詞의 表記體系를 南豐鉉·沈在箕는 <借名>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⁹⁾

이 固有名詞에 대한 音借表記는 漢文의 본고장인 漢土에서도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梵語인 Sakyamuni를 <釋迦牟尼>로 表記했다든가, Buddha를 <佛陀>로 表記했던 例와 같은 것이다.

이 固有名詞의 表記에는 漸次 漢字 借用의 두 가지의 原理인 音借와 訓借가 두루 쓰였던 結果, 韓土의 경우는, 그 訓讀의 方法이 없어진 後代에 와서는 하나의 指示對象이 두개의 다른 이름으

23) 趙潤濟, “國文學史”(叢報社, 1953), p. 23.

24) 李秉岐 著, “國文學全史·上”(新丘文化社, 1953), p. 23.

25) 南豐鉉, “漢字·漢文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發達”, (韓國精神文化院, 「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1981), p. 191.

26) 南豐鉉, “漢字借用表記의 發達”(李基文編, 「國語論文選」 7, 文字, 民衆書館, 1977), p. 45.

27) 日本書紀의 記錄인 百濟의 阿花王末年을 百濟의 阿莘王 末年으로 본다면 405AD, 市古貞治編 「日本文學全史」(學燈社, 1980), p. 52에서도 王仁의 來朝를 405AD로 記錄하고 있다.

28) 熊本縣 江田町 船山古墳의 太刀銘中 「□□下復□□□齒大王」을 「多遲比瑞別天皇」(反正大皇)으로 보고, 反正天皇의 壽紀紀年 406~410AD에서 干支二巡 百二十年을 延長하면 526~530AD가 된다.

29) 南豐鉉·沈在箕,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東洋學」第六輯, 1976), p. 4.

로 임하는 結果가 되어 버리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赫居世」와 「弗矩內」, 「荒宗」과 「居柒夫」와 같은 이름이다.

漢字의 借用에 의한 固有名詞의 表記는 漢土人들이 그들의 借用語를 表記하기 위하여 使用한 方法과 一致하나 後世에 내려오면서 國語 自體를 表記하기 위한 手段으로 應用되면서 獨自性を 띠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³⁰⁾

固有名詞에 대한 漢字借用表記의 例로서 現存 資料中 가장 오래 것으로는 「廣開土大王陵碑」(414 AD)의 碑文에서 볼 수 있는 바, 王號로서의 「鄒牟王」의 「鄒牟」는 「三國史記」에는 「朱蒙」으로,³¹⁾ 「日本書紀」에는 「仲牟」³²⁾ 또는 「都慕」로³³⁾ 日本의 「新撰姓氏錄」에는 「都慕」로³⁴⁾ 記錄되고 있다. 지금 韓國史에서는 通稱 「朱蒙」으로 呼稱되고 있는 高句麗의 初代王에 對한 呼稱인 「鄒牟」 「朱蒙」, 「仲牟」, 「都慕」 등에 관한 解釋을 梁柱東은 「神·王」의 韓土 古語인 「즈·금」의 音轉 「즈」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⁵⁾

「廣開土大王陵碑」에 보이는 河川名으로서의 「奄利大水」의 「奄利」도 固有名詞의 借用 表記인 바, 梁柱東은 이 말도 「神」의 古語인 「즈」乃至는 幽玄의 義인 「감·검」의 音轉인 「암·엄」에서 이루어진 河川名이라고³⁶⁾ 하고 있으나, 그 원뜻이 무엇이든 이 河川名은 「漢書」에는 「塩難水」로,³⁷⁾ 「後漢書」에는 「掩遞水」로³⁸⁾ 記錄되어 있는 河川과 同一한 河川名에 대한 漢字借用表記라고 보아진다.

이 밖에도 王號로서의 「儒留」, 地名으로서의 「沸流」, 「忽本」 등이 散見되는 바, 全體는 漢文으로 構成되어 있지만, 이 碑文中 100餘個의 固有名詞 表記에서 音을 利用한 借字表記가 指摘되어지고 있고, 그 借字의 數도 80餘字나 指摘되어지고 있는 것이다.³⁹⁾

그 뒤에 나타난 여러 資料에서 固有名詞의 借字表記의 例文은 數없이 指摘될 수 있는 것이다.

日本에 現存하고 있는 漢字·借用에 의한 固有名詞 表記의 文章中 가장 오래 것으로는, 日本에서 書記된 文章中 現存 最古의 文章으로 指目되고 있는 熊本縣 玉名市 江田町の 船山古墳出土의 太刀의 背面에 銀象嵌으로 새겨진 銘文에서 볼 수 있다. 이 銘文은 다음과 같이 判讀되고 있다.⁴⁰⁾

30) 南豐鉉, “古代國語의 史讀研究”(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東洋學」 第四輯, 1974), p. 3.

3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一.

32) 日本書紀, 天智天皇紀, 七年冬十月.

33) 上揭書, 桓武天皇紀, 八年.

34) 新撰姓氏錄, 右京諸藩, 百濟條.

35) 梁柱東, “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54), p. 160.

36) 上揭書, p. 9.

37) 漢書, 卷二十八, 地理志, 八, 玄菟郡條.

38)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傳, 夫餘條.

39) 南豐鉉, “漢字·漢文의 受容과 借字表記法의 發達”(韓國精神文化院, 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1981), p. 188.

40) 猪口篤志, 前揭書, p. 26.

治天下復宮彌都齒大王世，奉國典人，名无利，八月中，

(竒)

用大鑄釜并四尺廷刀 八十練六十据三寸上好 刀，服此刀者長壽，

子孫注注得其恩也 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加，書者張安也。

文頭に「復宮彌都齒大王」으로 推測되는 部分이 있어 이를 「多遲比瑞齒別天皇」(反正天皇)과 對應시켜 읽게 되면 이는 王號의 音訓借 表記라 할 수 있을 것이고, 「无利」 「伊太加」는 人名의 音借 表記라 할 수 있으며, 「張安」은 渡來系의 人名으로 보아진다. 「復宮彌都齒大王」을 反正天皇으로 본다면 反正天皇의 書紀紀年은 406 A.D.~410 A.D가 되는 것이다. 允恭天皇 以前의 書紀紀年일 경우 干支 二巡 百二十年을 내려⁴¹⁾ 計算한다면 526 A.D.~530 A.D.가 되어, 六世紀初가 되는 것이다.

다음 和歌山縣 隅田八幡宮의 人物畫像鏡銘에 보이는 文章이 있다.

癸未年八月日十大王年男弟王在意柴沙加宮時斯麻念長壽 遣開中費直穢人今州利 二人等取白上同二
百早作此竟

이 四十八字는 그 年代를 日本 學界에서는 443AD 或은 503AD로 推定하고 있거니와⁴²⁾ 筆者는 干支 一巡 六十年을 내려 564AD 以前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 前掲 船山古墳 出土의 太刀銘보다는 年代가 올라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穢入 今州利」는 渡來系의 人物이 分明하고, 「意柴沙加宮」(忍坂宮)의 宮名 「意柴沙加」를 비롯, 人名으로 보이는 「斯麻」 「費直」中 「斯麻」만은 音借 表記가 分明하다.

4. 土語의 語順에 따른 漢字文을 만든다.

韓土에 漢字·漢文이 傳來되자, 漢文은 漢字대로 發展되어 나아가는 一方, 이 漢字의 音과 訓을 假借하여 土語를 表記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처럼 漢字의 字形을 借用하여 國語를 表記하는 文體를 吏讀文, 또는 鄉札이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純漢文文體에서 吏讀文·鄉札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文體로 誓記石體라는 文體가 있다.

元來 漢文은 孤立語(isolating language)를 使用하고 있는 漢土人의 語法에 따라 지어지는 文章이다. 韓民族이나 日本民族은 附着語(agglutinative language)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漢文文章과는 語順이 다르나, 여기에 韓土人들은 漢土에서 輸入한 漢字를 使用하되 漢人의 語順에 의한 漢文을 짓는 것이 아니라 韓人의 語順에 의한 漢字文을 짓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文體를 學界에서는 誓記石體라 부르고 있다.

41) 坂本太郎 外, “日本書紀·上”(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1978), p. 580, 補注 3-18.

42) 市古貞治, 前掲書, p. 52, 猪口篤志, 前掲書, p. 30.

이 誓記石體라고 부르고 있는 表記體의 名稱은 이른바 「壬申誓記石」에 表記된 文體라는 데서 붙여진 呼稱이다. 「壬申誓記石」이란 1934年 慶尙北道 慶州의 北郊 見谷面 金丈里의 언덕에서 發見된 自然石인 바, 길이 約34cm, 두께 約2cm, 幅 約12.5cm인 돌인 것이다. 이것은 新羅時代에 두 花郎이 三年 안에 詩·尙書·禮의 傳을 習得할 것을 盟誓한 文句를 刻한 것인데, 六世紀 中葉, 또는 七世紀 初葉의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⁴³⁾

「壬申誓記石」의 刻文은 다음과 같다.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並誓記, 天前誓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無誓, 若借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 大亂世, 同客(二字不明)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 大誓 詩 尙書 禮 傳 倫得誓. 三年(下缺)

이 文章은 漢字文章이면서도 韓國語의 語順으로 漢字를 配列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漢字만을 익히어 韓國語의 語順으로 配列한 것이 아니라, 漢文을 우리말로 새겨 읽는 方法에서 발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以後’ ‘忠道’ ‘執持’ ‘可失’ 등의 語彙와 書名은 當時의 漢字音으로 音讀했을 것이다. ‘執持’는 高麗 및 朝鮮朝의 吏讀文書에서 자주 쓰였고, ‘傳承十執持’에서 ‘傳持’라는 韓國 特有的 漢字語로 발달하여 十五世紀에 正音表記 ‘던디하야’⁴⁴⁾釋譜24:4)로도 나타나고 있다.⁴⁴⁾

이 文體 또는 表記法에 대하여 國語學史에서는 誓記石體 表記라고 命名하여 왔거니와 이는 「壬申誓記石」의 文體에 대한 李丙燾의 다음과 같은 說에 根據를 두고 있다.

이러한 類의 文體는 吏讀文(吏讀를 섞어서 쓴 글) 使用以後의 文獻에 있어서는 別로 發見되지 아니 하니, 이는 결국 吏讀文 使用以前에 流行하던 一文體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吏讀文에 先行한—도리어 單純 素朴한 文體로서 吏讀文 使用의 前提인 緣起의 方式이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現在 普遍化 되어 있고, 이 以前에도 類似한 見解가 있었다. 鮎貝房之進은 이를 「俗漢文」이라 하고, 「漢文 같이 返點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써 내려간 文體」라 한 다음, 吏文(吏讀文)과의 先後關係에 있어 俗漢文이 吏文에 앞서는 것이며, 俗漢文은 漢字移入後 그리 멀지 않은 이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文體는 壬申誓記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三國時代의 散文表記에서 많이 發見되어지고 있다. 三國時代의 散文表記資料로는 高句麗의 資料인 「高句麗城壁石刻銘」(569AD)⁴⁶⁾을

43) 南豐鉉, “漢字借用表記의 發達”(李基文編, 「國語學論文選」7, 文字, 民衆書館, 1977), p. 47.
井上秀雄, “古代日本と朝鮮の文化特質”(大和書房,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976, 秋號), p. 10.
여기에서는 「732年に刻まれたとする説が有力で 671年以前とは考えられないといわれている」라고 하고 있다.

44) 南豐鉉, 上掲論文, p. 48.

45) 上掲論文, p. 53.

46) 上掲論文, p. 45. 「年代는 566年(丙戌)과 569(己丑)으로 推定되 바 있으나 秋史 金正壽는 長壽王代로 推定하였다.

이들 新羅의 資料인 「瑞鳳塚銀台杆銘」(451AD 推定), 「蔚州川前里石銘」(525AD), 「永川善堤碑丙辰銘」(563AD 推定), 「壬申誓記石銘」(552AD 혹은 612AD 推定), 「戊戌塲作碑銘」(578AD 推定), 「南山新城碑銘」(591AD 推定) 등이 있다.

이들 石銘들은 漢文으로서도 不完全한 文章이고 그렇다고 國語化한 文章도 아니다. 이들 高句麗와 新羅의 漢字文 表記에는 共通性이 엿보이는 바, 이 表記法은 高句麗에서 發生하여 新羅로 擴散된 것으로 봄이 妥當하다.⁴⁷⁾

이들 石銘의 年代는 推定된 年代이긴 하나 後代로 내려올수록 韓語的인 表現에 가까와짐을 볼 수 있다. 곧 「蔚州川前里石銘」의 表記는 「壬申誓記石銘」보다는 漢語的인 要素가 보다 強하다고 할 수 있다면, 「高句麗城壁石刻銘」이나 「瑞鳳塚銀台杆銘」보다는 國語的인 要素가 強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嚴密히 檢討하여 보면, 이 誓記石體 表記와 吏讀文 表記와의 差異는 區別하기가 至極히 어렵고, 時期的 先後 關係도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前掲 李丙燾의 所論의 線上에서 韓土에 漢文이 移入되면서 얼마 되지 않은 初期에, 吏讀文 表記에 先行한 漢文의 國語化 過程에서 나타난 文體가 誓記石體 表記法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土에 있어서의 誓記石體 表記에 對應되는 日本에 있어서의 文章으로는 史部流의 文章을 들 수가 있다.

井上秀雄는 漢字文의 日本文化 過程에서의 몇 段階를 陳述하면서, 漢字·漢文의 日本文化하는 方法에는 史部流라고 불리우는 文體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井上氏는 이 史部流를 定義하기를 「漢文처럼 主語에 따라 動詞가 오는 形式을 取하지 않고, 主語 다음에 目的語가 오고 最後에 動詞가 오는 形式」이라고 말하고, 그 例文으로 法隆寺金堂의 「藥師佛像造像記」의 「大御身勞賜時」(大御身勞賜ひし時)와 郡馬縣 八幡村 「大字山名村碑文」의 「母爲記定文也」(母のために記し定むる文なり) 등을 들고 있다.⁴⁸⁾

日本에 있어서의 이러한 文體는 推古朝의 遺文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日本列島로 漢字·漢文이 傳來되기는 應神天皇朝에 王仁博士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나 漢文學이 크게 發展하기는 推古天皇時代라고 말할 수 있다.

推古天皇이 即位(593AD)하자, 이 女王을 補佐하기 위하여 聖德太子가 攝政을 하기에 이르렀거니와, 聖德太子는 一面으로는 佛敎를 崇尚하고 一面으로는 漢學을 獎勵하여 이른바 「推古朝의 漢學의 꽃」을 키워냈던 것이다. 聖德太子는 그 攝政을 通하여 國內 體制를 整備하고 人材育成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學問을 勸獎 普及시켰으니 文運이 크게 떨쳐졌다. 그의 所作이라고 하는 「十七條憲法」은 漢文文章이면서도 和氣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文章으로 일컬어지고 있다.⁴⁹⁾

推古朝의 遺文으로서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⁵⁰⁾

47) 上掲論文, p. 47.

48) 井上秀雄, 前掲論文, p. 10.

49) 猪口篤志, 前掲書, p. 35.

50) 上掲書, pp. 33~42.

- ① 元興寺露盤銘(推古四年, 596AD 推定)
- ② 愛媛縣道後湯岡碑文(推古四年, 「釋日本紀」所引)
- ③ 元興寺丈六釋迦佛光背銘(推古十三年, 605AD 「元興寺緣起」所載)
- ④ 法隆寺如意輪觀音造像銘(推古十四年, 606AD 推定)
- ⑤ 法隆寺金堂藥師佛光背銘(推古十五年 607AD 推定)
- ⑥ 天壽國曼荼羅繡帳銘(推古三十年 623AD)
- ⑦ 法隆寺金堂釋迦佛光背銘(推古三十一年 624AD)
- ⑧ 法隆寺三尊佛光背銘(推古三十六年 629AD)

①의 「元興寺露盤銘」의 元興寺란 法興寺의 別名으로서, 오늘의 飛鳥寺는 그 자리에 서 있다.⁵¹⁾ 現存하지 않고 「元興寺緣起」(醍醐寺藏本)에 收錄되고 있으며, 文中 「大和國天皇 斯歸斯麻宮 治天下 名阿米久爾意斯波羅岐比里爾波彌己等(欽明天皇)」등 和風の 表記가 눈에 띄며 <丙辰年>으로 보이는 記年이 있어 推古四年(596AD)作으로 보고 있다. ②의 「愛媛縣道後湯岡碑文은 聖德太子가 高句麗에서 온 渡來僧 惠聡과 葛城臣 등을 이끌고 伊豫의 道後溫泉에 沐浴을 하고 그 記念으로 세운 碑인 바, 지금 碑는 없어지고, 文章만은 「釋日本紀」 卷十四에 남아 있다.⁵²⁾

앞에서 井上秀雄가 史部流의 例文으로 指摘한 「大御身勞賜時」의 文章은 「法隆寺金堂藥師佛光背銘」中の 文이고, 「母爲記定文也」의 文章은 群馬縣 八幡村 大宇山名의 山名村碑文에서 따낸 것이다. 「法隆寺金堂藥師佛光背銘」은 通稱 「藥師佛光背銘」 또는 「藥師佛像造像記」라는 이름을 가진 文章인 것으로, 推古朝遺文中에서도 가장 和臭가甚한 和化漢文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文章은 아래와 같다.

池邊大宮治天下天皇(用明天皇)大御身勞賜時歲次丙午年召於大王天皇(推古天皇)與太子(崇峻天皇)而誓願賜我大御病大平欲坐故將造寺藥師像作仕奉詔然當時崩賜造不堪者小治田大宮治天下大王天皇(推古天皇)及東宮聖王(聖德太子)大命受賜而歲次丁卯年仕奉
 ○丙午-用明天皇元年(586AD)
 ○丁卯-推古天皇十五年(607AD)

이 文章에 대해서 市古貞治는⁵³⁾

漢文의 常格을 無視하여 日本語를 表記하고자 企圖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大御身勞賜>라든가, <欲坐> <藥師像作仕奉> 등등 中國에서는 있을 수 없는 文字의 和風の 意味와 語序를 指摘할 수 있음으로써, 七世紀 初頭の 우리 나라의 表記史가 새로운 段階에 들어섰음을 말하고 있다.(中略)

51) 山岸德平, “日本漢文學史論考”(岩波書店, 1976), p. 10.

52) 猪口篤志, 前掲書, p. 40.

53) 市古貞治, 前掲書, p. 54.

漢字를 中國의 新體에 따르지 않고 自國語의 新體에 따라 配列하는 方法 自體는, 新羅의 古金石文에도 남아 있고, 朝鮮語의 新體가 日本語의 그것과 基本的으로는 一致한다는 點에서 이른바 變體漢文體는 和化漢文이기 이전에 朝鮮化한 漢文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指摘한 山名村碑文은 아래와 같다.

辛巳歲集月三日
佐野三家定賜健守命孫黑賣刀自此新川臣
兒斯多彌尼孫大兒臣娶生兒
長利僧母爲記定文也放光寺僧

이 文章에 대해서는 市古氏は 「文中〈賜〉의 敬語로서의 用法이나 倒讀形式을 가지지 않은 表語文字의 羅列法에서 이 文章도 完全한 和文으로 볼 수 있다. 〈辛巳歲〉는 天武十年(681AD)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市古氏は 「藥師佛像造像記」를 論하면서 「이러한 變體漢文體는 和化漢文이기 앞서 朝鮮化한 漢文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⁵⁴⁾」고 하였거니와 井上秀雄도 이 山名村碑文의 一部를 例示하면서 「이와 같은 史部流의 文體가 朝鮮에 있어서의 漢文의 國文化의 直接的 影響이 있었는지 與否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만 한 例를 들면 다음에 보이는 壬申誓記石의 碑文이 그 例가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壬申誓記石 碑文의 全文을 紹介하고 末松保和의 解讀까지 덧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井上氏は 이어 「日本の 史部流의 源流는 新羅 乃至는 朝鮮 諸國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⁵⁾」고 말하고 있다.

山岸德平도 ①의 「元興寺露盤銘」에 대해 言及하면서, 「國語를 漢字로 쓴 史部流의 文章이며, 丙辰의 해 곧 推古帝의 四年(대596AD) 十 月의 竣工이다.」고 하여 「元興寺露盤銘」이 史部流의 文體임을 말하고 있다.⁵⁶⁾

漢土에서, 孤立語를 使用하는 漢土人의 言語를 表現하기 위해 만들어진 漢字가, 附着語를 使用하고 있는 韓土나 日本列島에 傳來되었을 때, 그 言語의 性格의 다름에 抵抗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漢土人의 漢字로 土語 表記에까지 發展시킨 것이 韓土의 吏讀나 鄉札이고 日本列島에서의 萬葉假名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段階에 이르기 앞서 漢字文이면서도 自國의 土語의 語序에 맞게 이루어진 文章이 韓土의 誓記石體 文章이고 日本의 史部流인 것이다. 먼저 韓土에서 誓記石體 表記方式이 試圖되고, 이 方式이 日本列島로 影響을 주어 史部流 形式의 文章을 낳게 하였던 것임은 여러 資料에서 考證되고 있는 터이다.

54) 上掲書, p. 57.

55) 井上秀雄, 前掲論文, p. 10.

56) 山岸德平, “日本文學史論考”(岩波書店, 1974), p. 10.

5. 漢字를 音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使用하여 土語를 表記한다.

韓土에 있어서의 漢字의 受容過程에서 漢字의 音借에 의한 固有名詞의 表記는 上述 3에서 考察한 터이지만, 漢字 借用의 第一段階는 音借 表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로 漢文 文章 안에 쓰여야 할 固有名詞를 表記하기 위한 手段으로 漢字를 利用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後世에 내려오면서도 人名 地名 등의 固有名詞만이 아니라, 國語 自體를 表記하기 위한 手段으로 應用되면서 獨自性を 띠어 가게 되었을 것이다. 먼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蔚州川前里 書石追銘」과 「丹陽新羅赤城碑」에 보이는 <波珍干支>의 <波珍>인 것이다. 「蔚州川前里 書石追銘」은 다음과 같이 記錄되고 있다.

作食人眞宐知波珍干支婦只伺六牟呼夫人忝夫知居伐隄只婦一利等次夫人居禮次珍_二夫知

이제까지의 考證으로는 여기 보이는 <波珍>은 <海>의 뜻인 <patɔr>로 읽혔음이 確實視되고 있다. 梁柱東은 「稱讚如來歌」의 <無盡辯才叱海等>을 <無盡辯才사바돌>로 읽으면서 <海等>도 <바돌>로 읽고 있다.⁵⁷⁾ <波珍>의 <波>를 <pa>로 읽음은 音借이고 <珍>을 <tor>로 읽음은 訓借인 것이다. 이러한 音借는 吏讀, 鄉札, 口訣 등에 꾸준히 쓰여져 왔음을 볼 수 있다.

鄉歌 禮敬諸佛歌의 한 句節을 摘出하고 그 用字法을 分類하여 보면

「心未 筆留 慕呂白乎隱 佛體 前衣」에서

心未 : 訓讀 + 音借 (마수매)

筆留 : 訓讀 + 音借 (부드로)

慕呂白乎隱 : 訓讀 + 音借 + 訓借 + 訓借 + 音借 (그리슌은)

佛體 : 訓讀 + 音借 (부터)

前衣 : 音讀 + 音借 (前的)

이 句節에서는 讀字가 쓰이는 位置와 借字가 쓰이는 位置가 特徵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讀·借의 構造에서 借字表記로 나타나고 있는 部分은 두가지 機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心未> <慕呂>에서 볼 수 있음과 같이 音借字들은 訓讀字의 末音과 關係가 있다는 事實이다. 또 하나의 機能은 그 語節이 그 文章에서 취하는 文法的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構成要素는 漢文의 本來의 構成要素를 原則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그러던 것이 後代에 가서는 漢文 本來의 文法性을 無視하고 漢字를 音借까지 하면서 自由로운 國語 表現을 한 것은 一大 劃期的인 快事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漢文의 表意性을 脫皮한 것으로서 國語文章 表記 意欲이 旺盛해진 結果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漢文으로

57) 梁柱東, 前掲書, p. 706.

만 構文을 하던 知識인들이 漢文에서 自由로와짐으로써 音借로서 國語 表記에 自由로이 應用할 수 있었던 것이다. 音借 表記法은 吏讀, 鄉札, 口訣 등 모든 借字表記形態에서 찾아볼 수 있거니와 鄉札에서의 用字例를 찾아보면

- 知古如——알고다……(安民歌)
 有叱故——이실고……(擘星歌)
 寢矣見昆——자리보곤(處容歌)
 明期月良——볼기드래……(處容歌)
 於內秋察——어느말울……(祭亡妹歌)
 去內尼叱古——가느닛고……(祭亡妹歌)
 去奴隱處——가논곤……(祭亡妹歌)
 丘物叱丘物叱——구물구물……(恒順衆生歌)
 尋只見根——차지보곤……(隨喜功德歌)
 法洪沙叱多奈——法洪사사하나……(廣修供養歌)

吏讀, 鄉札에서 使用되던 이 音借 表記法은 李朝에 와서도 口訣에서 使用되다가 消滅되고 말았음에도, 韓土의 借字法에서 影響을 받은 日本에서는 萬葉假名 表記法을 創案·使用하였거니와, 그 萬葉假名에서도 音借가 가장 많이 쓰였던 借字法이었다. 그들은 이 音借表記法을 發展시켜 그들의 國字인 假名이라는 音節文字를 創案하기에까지 이르렀다. 韓土에서는 口訣에까지 이르러 音借表記法은 消滅되어버렸는데도 日本에서는 假名이라는 音節文字에까지 發展시킬 수 있었음은 日本語는 韓語에 比하여 音節의 數가 越等히 적어 50자로 表現 못할 것이 없음에 比하여 韓國語의 경우는 그 音節數가 엄청나게 많아서 새로운 系統의 文字(한글)의 創製가 不可避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日本の 萬葉集의 表記法 分類에서는 萬葉假名을 音假名과 訓假名으로 나누고 音假名을 다시 正音 借音 略音, 訓假名을 다시 正訓 借訓 義訓 戲訓 등으로 나눈다.⁵⁸⁾ 따라서 韓國의 借字表記法에서의 音借가 日本의 경우는 借音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다.

韓土 表記史에 있어서의 音借表記는 먼저, 漢文文章 속의 固有名詞를 表記하는 方法으로 쓰기 시작하였다는 事實과 마찬가지로 日本의 表記史에 있어서의 이 借音表記도 韓土에서와 마찬가지로 亦是 固有名詞 表記를 위하여 먼저 쓰였던 事實이 現存 資料에서 찾아볼 수 있다.

現存 日本 最古의 文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熊本縣 玉名市 江田町의 船山古墳에서 發見된 太刀의 銘文은 아래와 같다.

治天下復[宮] [淵] 齒大王世, 奉[正] 典[禮] 人名先[利] 弘, 八月中, 用大鑄釜并四尺廷刀 八十練六十
 摺三寸上好[]刀, 服此刀者長壽, 子孫注注得其恩也, 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 書者張安也.

58) 秋山 虔, 前掲書, p.119.

이 文章에서 王號 <彌都齒大王>의 <彌都>, 奉事典曹人인 <无利<ヲ>, 作刀者인 <伊太加> 등의 固有名詞는 모두 借音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의 경우는 이 借音을 發展시켜 萬葉假名을 만들어 내었고, 그 萬葉假名에서 오늘의 日本文字인 假名이 만들어졌다. 八世紀에 이루어진 記紀歌謠 (「古事記」는 712AD, 「日本書紀」는 720AD) 를 오늘에서도 쉬이 解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歌謠가 한결같이 借音이란 表記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古事記」 第1歌인 須佐之男命의 노래는 아래와 같다.

夜久毛多都
伊豆毛夜弊賀岐
都麻基微爾
夜弊加岐都久流
曾能夜弊賀岐袁

全篇이 一字一音節로 借音되어 있어 讀法의 曖昧함이 없다. 5·7·5·7·7의 和歌의 音數律을 行의 길이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日本語는 音節의 構造가 單純하고 또한 그 數가 적어서 漢字의 借音表記에 成功한 것이다.

6. 漢字를 訓으로 읽고 그 原意를 理解한다.

漢字는 字形과 字音이라는 두 가지가 한 單位로 되어 輸入되었다. 다시 말해서 意味를 나타내는 字形과 그 音聲的 表現인 字音이 漢字 하나하나에 짝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漢字의 二重性이다.⁵⁹⁾ 字音은 그 글자가 發生한 漢土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말소리이지만, 韓土人에게는 전혀 생소한 外國音이었다. 따라서 音과 거기에 對應하는 글자는 우리 韓土人에게는 즉 시 單一 概念, 單一한 글자로서의 同一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字音과 字形 사이의 同一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그 中間에 그것에 對應하는 우리말 語辭를 插入하여 記憶하는 方法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插入된 우리말 語辭를 訓(釋, 새김)이라고 한다. 이를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

漢字 (字形)	字 音	訓 (釋)	受容의 段階
天	천		第 一 段 階
天	천	하늘	第 二 段 階

韓土에서나 日本에서나 漢字의 輸入 初期에는 音讀만 하였다는 것은 앞서도 이미 지적한 터이다. 輸入 初期 生疎한 外國音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韓土人들이 언제부터 이 字形과

59) 沈在箕, “國語의 生成 및 變遷에 對하여”(「韓國學報」(I), 一志社, 1975, 서울, 創刊號, p.7.

字音의 二重性의 漢字에 다시 訓(釋)을 加한 三重性으로 理解하고 使用하였을까. 아마 이 欲求도 漢字 輸入 直後부터 싹텃을 것으로 보아진다.

漢字 輸入 初期, 그 漢字를 字形과 字音으로만 받아들였던 韓土人들은 그 字形과 字音을 同一化시키는 方法으로 字訓이라는 것을 創案해 내었다. 韓土에서 먼저 創案된 이 訓讀法은 바로 日本으로 影響을 주었거니와, 이 字音의 創案이야말로 漢字 受容 過程에 있어서 한 劃期的인 前進 이었다고 할 만하다. 孤立語를 쓰는 漢土人들에 의하여 創製된 漢字를 附着語를 쓰는 民族으로서 이를 受容해야 하는 處地는 韓土나 日本이 全혀 同一한 事情이다.

五世紀 내지 六世紀初의 新羅 最古의 記錄으로 推定되고 있는 「蔚州川前里書石原銘(525AD 推定)」이나 六世紀中葉의 丹陽新羅赤城碑(眞興王 10年代) 碑文에는 漢文式 語順과 더불어 國語 語順의 句節이 보임은 勿論, 訓讀하였을 可能性의 句節도 눈에 띈다. 곧

善石得造—— 좋은 돌을 얻어 만든다

并遊友妹麗德光妙於史郎安郎主之—— 함께 노닐 벗은 妹 麗德光妙 於史郎 安郎님이다.

등의 川前里書石 原銘의 句節과

(前)者更赤城烟去使之——(前)者は 다시 赤城烟으로 가서 使할 것이다.

國法中分與—— 國法에 따라 나누어 준다.

등의 赤城碑의 句節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國語 語順의 統辭法을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漢字中 어떤 字는 벌써 訓讀하였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이 두 資料의 金石文에는 따로 〈波珍〉이란 語句가 보이고, 이는 〈바돌〉로 읽히며 〈海〉에 對應되는 말임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여기에 「珍」을 「돌」로 읽는 것과 같은 訓借表記가 있다는 것은 이미 〈訓讀〉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鄉歌 處容歌의 한 句節을 摘出하고 用字法을 分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東京 明期 月良 夜入伊 遊行如可」에서

東京：訓讀(서날)(梁柱東 義訓讀, 南豐鉉 音讀+音讀)

明期：訓讀+音借(볼과)

月良：訓讀+訓借(드래)

夜入伊：訓讀+訓讀+音借(밤드러)

遊行如可：訓讀+訓讀+訓借+音借(노니다가)

여기에 보이는 各 語節의 表記構造는 그 頭部는 訓讀字들로 이루어져 있고, 後尾部는 借(假)字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抽象化하여 말하자면 鄉歌의 表記構造는 原則적으로 語

節 單位로 하여 <讀+借(假)>의 構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新羅時代의 國號 官職名 人名 등에는 讀과 借의 두 方法이 混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例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音 借	訓 借
國 號	徐羅伐 (史記·地理一) 徐耶伐 (" ") 斯 羅 (" ")	新羅 (史記·地理一) 鷄林 (" ") 始林 (" ")
官職名	伊伐食, 伊罰干 (史記·職官上) 于伐食·舒發翰 (") 叙弗郎 (")	角干 (史記·職官上) 角祭 (") 酒多 (")
人 名	居柒夫 (眞興王時人) 弗矩內 (遺事·卷一) 吳斯夫 (智證王時人)	荒宗 (眞興王時人) 赫居世 (遺事·卷一) 昔宗 (智證王時人)

三國時代의 借字表記法은 高句麗에서 먼저 創案되었다고 보겠으나 新羅에서 가장 發展하여 現存 資料만으로도, 人名 地名 官職名 등에서부터 民俗行事의 名稱에 까지 音讀·訓讀과 音借·訓借로 記錄하고 있는 바, 이로서 土語를 自由로이 表記하게 됨으로써 歌謠와 같은 섬세한 感情까지 記錄해 내기에 이르렀다. 鄉札 表記에서 訓讀의 用字例를 摘出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去隱春皆理米	간봄그리매 (蔡竹旨郎歌)
露曉邪隱月羅理	날호얀드리 (讀善婆郎歌)
白雲音逐于	흰구름조추 (")
夜入伊遊行如可	밤드리노니다가 (處容歌)
入良沙寢矣見昆	드리사자리보문 (")
他密只嫁良置古	넝그즈지얼어두고 (薯童謠)
夜矣卯乙抱遺去如	밤의물안고가다 (")
月下伊底亦	달하이데 (願往生歌)
奮音深史隱	다덤김호산 (")
直等隱心音矣	고든민숨의 (月明兜率歌)

(讀法·梁柱東)

日本에 있어서의 漢字·漢文의 受容過程도 韓土와 다를 바 없다. 漢字의 字形과 字音을 하나의 單位로 받아들인 韓土人이 字訓을 創案하여 이것으로 自國語를 表記하는 데 借用(訓借)하였던

60) 南豐鉉, "借字表記의 用字法에 對하여" (蘭江 南廣隅博士華甲記念論叢, 一潮閣, 1980), p. 458.

방법은 日本에서도 바로 이루어졌고, 韓土에서는 三國時代에서 高麗時代로 내려오면서 漢字의 訓讀法이 中斷되고 말았지만 日本에서는 現行 文章에서도 이 訓讀法이 施行되고 있는 것이다.

借字表記法中 우리의 用語 <訓讀>을 萬葉假名 表記法 分類에 있어서는 <正訓>이라고 부르고 있다.⁶¹⁾ 이는 우리의 借字表記法의 用語 <訓借>(訓假)를 <借訓>이라 부르고 있는 것과의 相對的인 用語이다.

日本人의 손으로 이루어진 現存 最古의 漢字文은, 前述한 바와 같이, 熊本縣玉名市江田町の 船山古墳出土의 太刀 背面에 銀象嵌으로 새겨진 銘文이거니와, 이 文章 序頭는

治天下復宮彌爾齒大王世

로 判讀되고 있는 것이다.⁶²⁾ 日本學界에서는 이 文章의 「復宮彌都齒大王」을 「たじひのみやみずはわけおほきみ」로 읽고, 이를 宋書에서 말하는 倭의 五王中 <珍>⁶³⁾에 比定, 日本皇統中の 反正天皇(多遲比瑞齒別天皇)으로 理解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復宮彌都齒大王>의 用字構造는 <復(借訓)+宮(正訓)+彌(借音)+都(借音)+齒(借訓)+大(正訓)+王(正訓)>와 같이 分析될 것으로 본다.

日本 最古의 史書인 「古事記」는 編纂者 自身이 音讀과 訓讀을 交用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곧

謹隨詔旨，子細採摭。然，上古之時，言意並朴，數文構句，於字即難。己因訓述者 詞不逮心，全以音連者，事趣更長。是以今，或一句之中 交用音訓，或一事之內，全以訓錄⁶⁴⁾

이라 하여 一句中에서도 音讀과 訓讀을 交用하거나 或 全句를 訓讀만 할 경우도 있다고 한 것이다.

古事記(712AD)는 收錄歌謠 113首를 이른바 萬葉假名에 의하여 記錄하고 있어 借音表記法을 쓰고 있는 實情이고, 歌謠를 除外한 部分은 漢字의 音訓 混用의 이른바 倭漢混淆體라고 할 수 있는 文體를 쓰고 있는 것이다.

「古事記」와 並稱되는 「日本書紀」(720AD)는, 128首의 歌謠 部分만은 一字一音節式의 萬葉假名表記法으로 記錄되고 있고, 歌謠 部分을 除外한 散文은 純漢文體로 되고 있다.

그런데 純漢文體로 되어 있는 日本書紀가 오늘은 한결같이 訓讀되고 있거니와 奈良時代(八世紀), 아니면 平安時代 初期(九世紀)에, 이미 訓讀되었을 可能性이 보이는 記錄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것은 「日本書紀」古寫本에 訓讀을 表示하고 있는 訓注가 적지 않게 나타나 있으며, 그 訓

61) 秋山 虔, 前掲書, p.119.

62) 猪口篤志, 前掲書, p.26. 이 太刀는 現在 東京上野國立博物館에 있음.

63) 梁의 沈約撰, 「宋書」夷蠻傳, 倭國條, 「倭國在高麗東南大海中, 世修貢職, 高祖永初二年, 詔曰, 倭讚, 萬里修貢, 遠城宜甄, 可賜除授, 太祖元嘉二年, 讚又遣 司馬曹達, 奉表獻方物,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六國除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云云.

64) 古事記, 上卷, 太安萬侶序

注에는 <養老> 또는 <養老說>이라고 附記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다.⁶⁵⁾ 訓注의 보기를 들면

<前田本> 仁德即位 前期 度子 ワタリモリ 養老
 <卜部兼夏本> 神代記下 底下 ソコツンタ 養老說
 <釋日本紀> 成務紀五年 楯矛 多々奈彌 養老

鎌倉時代(十三世紀) 後期에 書寫된 卜部兼夏筆 神代紀에는 萬葉假名에 의한 約190例에 達하는 傍訓의 注記가 있거니와, 主로 그 下卷의 後半에 集中하여 <弘仁>(810AD~823AD의 年號)의 文字를 附記하고 있다. 곧⁶⁶⁾

楯繩 多久奈波	弘仁記說
手置帆負 互於支保於此	弘仁說
高天原 多加阿万波良	弘仁
齋庭 由尔波	弘仁說
海幸 于美左知	弘仁記說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資料로 볼 때, 「日本書紀」의 어떤 部分만은 音讀을⁶⁷⁾ 해야 하고 어떤 部分만은 訓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特殊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訓讀을 해 버리는 것 같다.

7. 漢字를 訓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使用하여 土語를 表記한다.

漢土에서 傳來된 漢字를 受容할 때 이를 字形과 字音만으로 받아들인 韓土人들은, 漢字의 原義에 對應되는 韓語로써 그 漢字를 읽는 訓讀法을 創案해 낸 다음 다시 그 訓이 지니는 元 뜻으로만 使用하는 訓讀法에 머물지 않고, 그 訓을 가지고, 그 訓의 元 뜻을 벗어나서 하나의 表音符號로 使用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漢字 受容 過程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進展이었다. 이러한 漢字借字法을, 漢字의 元 뜻을 따라 읽는 <訓讀>(日本의 경우는 <正讀>)에 대하여 <訓借>(梁柱東)⁶⁸⁾ 또는 <訓假>⁶⁹⁾(南豐鉉, 日本의 경우는 <借訓>)로 부르고 있다.

이 訓借表記法도 音借表記法이 이루어지면서 곧 뒤이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그 金石文의

65) 板本太郎 著, 前掲書, p. 34.

66) 上掲書, pp. 35-36.

67) 上掲書, 「釋日本紀」에 보면 特定한 漢字는 字音으로 읽도록 明示한 곳이 눈에 띈다. 例를 들면, 「論議者, 私記曰, 三字音連讀, 但議音解之」, 「驟, 私記曰, 音讀」, 「禮拜供養, 私記曰, 四子音讀」, 「櫻岸山明, 私記曰, 櫻岸山, 漢音讀也, 明也讀南也」와 같은 것 들이다.

68) 梁柱東, 前掲書, pp. 60-61.

69) 南豐鉉, “借字表記의 用法에 對하여”(蘭汀 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80), p.458.

資料로는 자주 舉例되는 6世紀初(525AD 推定)의 記錄으로 推定되는 「蔚州川前里書石追銘」과 六世紀中葉(眞興王 10年代)의 記錄으로 確實視되는 「丹陽新羅赤城碑」碑文에 보이는 <波珍干支>란 刻記가 證明하여 주고 있다. 이 <波珍干支>의 <波珍>은 <바돌>로 읽히어 <海>에 對應됨은 上述의 音借表記法이나 訓讀表記法에서 이미 指摘한 바 있다.

「三國史記」에도 職官名으로 「波珍滄 或云海干」이란 記錄이 있어⁷⁰⁾ <波珍>이 <바돌>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을 뿐 아니라, 「高麗史」의 「無等山 一云無珍岳 一云瑞石山」이란⁷¹⁾ 記錄, 「馬靈縣 本百濟馬突 一云馬珍 一云馬珍良」이란 記錄, 「鎭安縣 本百濟難珍阿縣 一云馬珍良」⁷²⁾이란 記錄 등 등은 本來 <等·石·突·珍>이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日本書紀」에서도 <波珍>을 <ハトリ> (hatori) 로 訓記하고 있을 뿐 아니라,⁷³⁾ 「釋日本紀」에서도 이를 <ハトリ> (hatori)로 訓記하고 있는 것이다.⁷⁴⁾ 「古事記」에서는 <波珍干岐>를 <波鎭漢紀>로⁷⁵⁾ 記錄하고 있거니와, 이 <珍>과 <鎭>의 對應은, 上掲 「高麗史」의 「鎭安縣 本百濟難珍阿縣」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訓借(訓假)의 表記法은 鄉札 表記에 가서 두드러지게 發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例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至去良	니르가라 (禮敬諸佛歌)
慕呂白乎隱	그리숨은 (禮敬諸佛歌)
白遣賜立	숨고샤서 (願往生歌)
湧出去良	숫나가라 (稱讚如來歌)
祈以支白屋尸	비숨을 (千手觀音歌)
四是良羅	네히어라 (處容歌)
人是	사르미 (擘星歌)
倭理叱軍盧	옛人軍두 (擘星歌)
月廬八切爾	둘두브즈리 (擘星歌)

引用 例文의 讀法은 梁柱東을 따랐다.⁷⁶⁾ 借字表記法 가운데서 이 訓借(訓假)表記法은 訓讀法의 創案과 거의 매를 같이하여 創案된 것으로 보이나, 이 訓借法은 다른 借字表記法과 더불어 日本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는 韓土에서 볼 수 없었던 큰 發展을 보였다. 韓土는 漢文文化의 發祥地인 漢土와 陸續되어 있어서 漢字의 原義를 버리고 表記하는 訓借表記法이 큰 發展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⁷⁷⁾

70) 三國史記, 卷三十八, 職官·上.

71) 高麗史, 卷五十七, 地理·二.

72) 上掲書.

73) 日本書紀, 仲愛天皇紀, 九年.

74) 釋日本紀, 卷十七.

75) 古事記, 卷下, 遠飛鳥宮條.

76) 梁柱東, 前掲書, p. 287.

77) 市古貞治, 前掲書, p. 48.

日本에 있어서의 借字表記法中 이 訓借(訓假)의 表記法, 이른바 萬葉假名の 表記法 分類에서 는 이를 <借訓>이라고 부르고 있거니와⁷⁸⁾ 그 보기를 들면 아래와 같다.

一字一音節 假名

名津蚊爲	なつかし → 懷
千羽日	ちはひ → 幸
八間跡	やまと → 大和
他田渚	たたす → 立
等六	らむ → 助動詞

一字多音節 假名

待	まつ → 松
夏檉	なつかし → 懷
鶴鴨	つるかも → 助動詞・助詞
酒嘗	さけなむ → 放
儘	いかり → 重石

梁柱東은 郷札表記法中

今日	→ 오늘
何如	→ 엇다

와 같이 二字 以上으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義訓>이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萬葉假名에서도 <義訓>이라는 것이 있으니

西渡	かたぶく → 傾
寒	ふゆ → 冬
光儀	すがた → 姿
玄黃	あめつち → 天地
山下	あらし → 嵐
古昔	いにしへ → 古
水葱少熱	なぎぬる → 和(助動詞)

등이 보이며, 郷歌의 表記中

78) 秋山 虔, 前掲書, p.119.

病吟 — 아으(普皆廻向歌)
 城山人 — 아으(常隨佛歌歌)
 打心 — 아으(恒順衆生歌)

등의 <戲訓>이 있거니와, 日本에서는 이 <戲訓>이 더욱 발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十六 しし → 猪
 山上復有山 いづ → 出
 八十里喚鷄 → くくりつつ

등을 볼 수 있다.

漢字·漢文의 受容過程上の 韓日兩側의 樣相을 보건대, 그것은 언제나 韓土에서 먼저 受容 創案되고 이는 바로 日本으로 傳達되었던 것이요, 이 訓借의 方法도 韓土에서 創案 使用되면서 日本으로 건너가, 그곳에서도 義訓·戲訓의 方法에까지 發展시켰던 것이다. 借字表記法中 이 訓借(借訓)表記法만은 韓日 共히 그 用例도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크게 發展하지도 못한 채 점차 消滅되고 말았다.

8. 漢字를 借用하여 土語의 關係詞 등을 表記한다.

漢字의 借用表記의 第一段階는 音借表記였을 것이라면, 第二段階는 訓借表記였을 것이다.⁷⁹⁾

그 다음으로는 土語의 文章을 表記하기 위한 手段이 擡頭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것은 漢語의 統辭構造와 土語의 統辭構造間의 差를 어느 程度 把握하면서부터 싹틔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文章表記手段은 現在 두 段階의 過程을 거쳤음이 資料에 의하여 檢討되어져 왔다. 그 하나는 漢文과 土語와의 語順의 差를 克服하는 過程이었고, 다른 하나는 克服된 語順에 土語 虛辭를 첨가하는 過程이었다. 이 두 過程을 거침으로써 오늘 우리가 吏讀라는 概念에 該當할 만한 表記法이 發生하게 된 것이다.⁸⁰⁾

現存 資料中 가장 오랜 吏~文으로는 慶州 南山新城碑銘(591AD)을 드는데,⁸¹⁾ 그 碑銘은 다음과 같다.

辛亥年二月十六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後 三年 崩破者 罪教事爲 聞教令 誓事之

곧, 이 銘文은 ... 語順이 韓語의 語順과 一致함을 前提로 하였을 때, 「作節」은 「지을 때」, 또는 「만들 때」, 「如」는 「若」과 같은 것으로 「만약」, 「法」은 「國法」, 「以」는 造格 「~(으/으)로」,

79) 南豊鉉, “古代國語의 吏讀表記”(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東洋學」 第四輯, 1974), p. 3.

80) 上掲書, p. 4.

81) 沈在箕,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對하여”(「韓國學報」 I, 一志社, 1975, 겨울, 創刊號), p. 10.

「作後三年」은 「지은 뒤 三年」, 「者」는 主題化添辭와 系統을 같이 하는 「~(으/으)니」으로 後世의 「隱」, 「罪敎事爲」는 「罪주실 일」이니, 「罪」는 動詞 「罪주다」, 「敎」는 後代의 尊稱接尾辭 「~(으/으)시」, 「事」는 「일」, 「爲」는 「만들다」 「定하다」의 뜻인 「~슴다」, 「聞敎令」은 「들으시게 하여」이니, 「聞」은 「奏聞」, 「敎」는 「~(으/으)시」, 「令」은 「시령」(시책), 「誓事之」는 「맹서하는 일이다」이니 「誓」는 「맹서하다」, 「事」는 「일」, 「之」는 「~이라」로서 「也」와 같은 뜻인 것이다. 이 文章을 풀어 보이면,

辛亥年 二月 二十六日 南山新城을 지을 때, 만약 法으로 지은 後 三年에, 崩破하면 罪주실 일로 삼아, 들으시게 하여 맹서하는 일이다.

가 될 것이다.

이 解讀過程에서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그 語學的인 特性인 것이다. 그것은 첫째 이 碑銘의 語順이 韓語的인 語順의 排列이란 點이며, 둘째는 異語對應을 基礎로 한 借用表記가 눈에 띄는 바, 이 借用은 語彙論的인 對應에 의한 訓借와 文法的인 對應에 의한 訓借로 大別되고 單純한 音借는 發見되지 않는다.⁸²⁾

이것은 當時의 先人들이 構文에 있어서, 語順排列의 問題는 漢語의 文法性을 克服하였다 하더라도 國語의 虛辭 表記에 있어서는 漢語의 文法性을 克服하지 못한 段階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六世紀半까지의 文章表現에서는 文法關係를 보여주는 本格的인 借字의 使用은 發見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六世紀末까지의 文章表現에 있어서는 「吐」의 存在가 發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音借表記에 있어서의 虛辭의 表記는 新羅의 三國統一 後인 八世紀 中葉의 資料인 「新羅華嚴經造成記」(天寶14年, 755AD)에서 비로소 訓讀과는 異質的인 虛辭(吐)의 成立을 어렵게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⁸³⁾ 이 時期는 곧 薛聰의 時期와 一致하는 것으로서, 借字表記法의 發達에 그가 重要한 구실을 했다는 史書들의 記錄과 一致한다 하겠다.⁸⁴⁾

韓土의 借字表記體系와 日本의 그것과는 與件이 달랐다. 日本語의 音節構造는 單純하여, 모든 音節을 借字로 表記할 수가 있어서, 日本語를 全面的으로 表記할 수 있는 表音文字에로의 可能性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이다.⁸⁵⁾

關係詞(吐)라면 文法形態素에 包含되는 것으로서 文法形態素라면 助詞類 語尾類로 나눌 수 있고, 助詞類만도 다시 格助詞 補助詞 擊辭로, 語尾類도 다시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借字用例를 보이기 위하여 形態素의 觀念이 어느 程度 確立된 後世의 韓

82) 上揭書, p. 9.

83) 南豐鉉, “漢字·漢文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發達”(韓國精神文化院, 「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 의 關係」, 1981), p. 199參照.

84) 上揭論文, p. 200.

85) 上揭論文.

日 兩側의 歌謠 表記例에서의 格助詞를 몇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⁸⁶⁾(韓國側 表記例는 郷歌에서 맞으며, 讀法은 梁柱東을 따랐고, 日本側 表記例는 萬葉歌謠에서 맞고, 卷次와 歌謠 固有番號를 添記하였으 며, 讀法은 佐佐木信綱를 따랐다.)

1) 主 格

(1) 音借

- 脚鳥伊 …… 가느리 (處容歌)
 木乃關守伊 …… 紀の關守い(kinō seki morii, 四·545)
 君我由久 …… 君が行く(kimiga juku, 十五·3724)

(2) 訓借

- 人是 …… 사르미 (彗星歌)
 寶之子等蚊 …… 寶の子うが(takaraŋō koraga, 十六·3791)

2) 囑格

(1) 音借

- 善郎矣 …… 善郎의 (讀善婆郎歌)
 人衣 …… 人の (隨喜功德歌)
 我日皇子乃 …… わが日のみこの(uaga fino mikonō, 二·171)
 於保伎美能 …… 大君の(ofokiminō, 十八·4095)

(2) 訓借

- 郷歌에는 그 用例가 보이지 않음.
 奈良野和藝葬乎 …… 奈良の吾家を(naranō uagifeuo, 十八·4048)

3) 處格

(1) 音借

- 夜矣 …… 밤이 (處容歌)
 邊希 …… 변희 (獻花歌)
 奈良乃美夜古通 …… 奈良の都に(narano mijakoni, 五·1808)
 百代爾毛 …… 百代にも(momoiŋimo, 六·1055)

(2) 訓借

- 巷中 …… 마을히 (慕竹旨郎歌)
 汀里也中 …… 나리여히 (讀善婆郎歌)
 松風丹 …… 松風に(matsukazeni, 三·260)
 妹似相武登 …… 妹にあはむと(imoni afamutō, 四·664)

4) 對格

(1) 音借

- 孺童房乙 …… 孺童房을 (孺童謠)
 花盼 …… 꽃을 (獻花歌)
 可美乎 …… 神を(kamiuo, 二十·4374)
 長手遠 …… 長路を(nagateuo, 五·888)

86) 李鍾徹, “郷歌와 萬葉集歌의 表記法比較研究”, (集文堂, 1983), p. 93.

(2) 訓借

- 汝於多支行齊 …… 너엇대니저 (怨樹歌)
 絹帶尾 …… 絹의帶를 (kinunō obiwo, 十六·3791)
 倭雄過而 …… 大和を過ぎて (jamatō uo sugite, 十三·3333)

(以下 略)

韓土의 關係詞는 後期 吏讀文에서 더욱 克明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後期吏讀文으로서의 「大明律直解」(1395AD)의 表記例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凡奴子亦 良人矣 婦女乙 犯姦爲在乙良 凡姦罪良中 加一等齊 奴婢亦 相姦爲在乙良 凡姦罪以 諭爲
 乎事

前掲의 鄉札의 경우는 觀念詞나 關係詞를 完全히 國語로 읽게 하는 純國文體였다면, 이 吏讀文은 名詞 또는 用言의 語幹은 大概 漢文으로 되어 있고 關係詞만 國語로 되고 있는 國漢文混用體라고 할 만하다. 이 關係詞의 表記는 口訣에 이르러 더 確實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例文을 「童蒙先習」에서 抽出하면 아래와 같다.

天地之間厓(ア) 唯人是(ハ) 最貴爲尼(ソヒ) 所貴乎人者隱(ア) 以其有五倫是羅(ニク)

例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口訣文이란 純漢文體 文章이다. 漢文을 읽을 때 그 文章의 原型은 그대로 維持하면서 國語로도 理解하기 좋도록 漢語句 사이사이에 國語音으로 달아 놓은 吐가 口訣인 것이다. 이 口訣은 漢字를 借用하되 그 全字를 使用하는 경우도 있고 略字를 使用하는 경우도 있었다.

例文에서 보이는 <厓> <是> <爲尼> <隱> <是羅>가 全字를 使用한 口訣이며, 이는 다시 <ア> <ハ> <ソヒ> <ア> <ニ> 등과 같이 略字로도 쓰이며, 各各 <애> <이> <하니> <은> <이라> 등으로 읽힌다.

이 口訣의 略體는 後述하는 日本의 假名文字中 「가다까나」(片假名)의 字體와 相通함을 알 수 있다.

韓土의 借字表記와 日本의 그것과는 與件을 달리한다. 日本語의 音節構造는 單純하여 모든 音節을 借字로 쉬이 表記할 수 있어서 日本語를 全面的으로 表記할 수 있는 表記文字의 可能性이 일찍부터 있었다.⁸⁷⁾

日本의 表記史에서 韓土의 吏讀에 對比되는 表記法으로는 <宣命書>(Senmjogaki)라는 것이 있다. 天皇이 神命을 받들어 國民에게 告하는 말을 <宣命>(Senmjo)이라고 하고, 이 <宣命>을 記錄하

87) 南豊鉉, “漢字·漢文의 受容과 借字表記法의 發達”(韓國精神文化院, 「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1981), p. 200.

가 위한 獨特한 書記法을 <宣命書>라고 부르고 있다.⁸⁸⁾

이 <宣命>이라는 用語는 일찌기 <續日本紀>⁸⁹⁾에 보이고 있으니,

丁未制 選叙之日 宣命以前 諸宰相等 出立廳前 宣竟 就座 自今以後 永爲恒例

라는 것이 最古이고 이어 孝謙天皇의 天平勝寶九年(757AD) 三月二十五日의 <三月十五日 中務卿 宣命>(正倉院文書) 등에 <宣命>이란 用語가 보이나, 이때만 하더라도 <命을 宣한다>라는 動詞였고 오늘의 <宣命>과 같이 名詞로 固定되어 나타나기는 「日本後記」부터인⁹⁰⁾ 것이다.

天皇詔勅은 元來 日本語로 陳述되었던 것이라고 하나, 漢字가 傳來되고 大陸文化의 影響을 받으면서 漢字로 記錄되는 일이 漸次 많아졌으며, 「續日本紀」에 있어서도 漢文體의 詔勅이 國文體의 詔勅보다도 많아졌다는 實情이었다. 이러한 傾向은 時代가 내려올수록 甚해졌으며, 平安朝(9世紀) 時代가 되면서는 漢文의 詔勅에 대하여 國文體의 그것만을 따로 하여 이를 <宣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⁹¹⁾

<宣命>의 記錄法을 이른바 <宣命書>라고 하는 것이니 漢字를 使用할 경우, 助詞나 活用語尾 등은 一字一音式의 萬葉假名을 使用 小書하고, 그 以外の 글은, 漢字의 正訓을 使用 大書한다는 書法인 것이다.

「續日本紀」의 第一詔에서 그 表記例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⁹²⁾

高天原(高) 事始而遠(高) 天皇祖御世中(高) 今至(高) 執氏(高) 天皇御子之阿禮坐(高) 弥繼繼(高) 大八島國將知次(高) 天都神(高) 御子隨(高) 天坐神之依(高) 奉(高) 隨(高) 此天津日嗣高御座(高) 業(高) 現御神(高) 大八島國所知倭根子(高) 天皇命賜(高) 負賜(高) 貴(高) 高(高) 廣(高) 大命(高) 受賜(高) 恐坐(高) 此(高) 食國天下(高) 調賜(高) 平(高)

이 <宣命書>의 方法은 이 小書의 部分을 <假名>으로 바꾸어 表記하기만 하면 그대로 現在의 書記法과 큰 差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宣命書>란 表記體는 <祝詞>(norito) 表記에서도 볼 수 있다. <宣命>:Senmjo)이 天皇이 神命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백성에게 내리는 글이라면, <祝詞>는 國家나 國民의 幸福을 祈願하기 위하여 神 앞에 곱해 아뢰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祈年祭의 <祝詞>를 보기로 들면 아래와 같다.⁹³⁾

88) 秋山 虔, 前掲書, p.112.

89) 「續日本紀」는 淡海三船등이 編纂한 史書, 42代 文武朝로부터 50代 桓武朝에 이르는 日本正史의 하나. 이 <宣命>이라는 用語는 神龜五年三月條에 보인다.

90) 「日本後記」는 藤原冬嗣등이 編纂한 史書. 50代 桓武朝로부터 52代 淳和朝에 이르는 日本正史의 하나.

91) 武田祐吉校注, “古事記·祝詞”(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I, 1968), pp.284~185.

92) 이것은 文武天皇元年(697AD) 八月十七日, 天皇即位의 宣命으로서 「續日本紀」卷一에, 「文武天皇元年八月甲子朔, 受禪即位庚辰詔曰」이라고 하여 실려있다.

93) 武田祐吉校注, 前掲書, p.388. 이 祈年祭의 <祝詞>는 大體로 飛鳥時代(672~694AD), 또는 藤原氏의 執權時代(694~710AD)에 制定되었을 것이라는 推測이 可能할 뿐이다.

高天原_高 申留坐. 皇陸神漏伎命・神漏彌命以, 天社・國社_高 稱辭竟奉, 皇祖神等_能 前_高 白_高.
 今年二月_高 御年初將賜_高 爲而, 皇御孫命宇豆_能 幣帛_高 朝日_能 豐逆登_高 稱辭竟奉_高 在宣

助詞에 대한 借字表記만을 놓고 볼 때 韓土의 口訣과 日本의 宣命書는 비슷함을 볼 수 있으나, 口訣은 純漢文體의 文章을 읽을 때 釋讀을 위하여 節句마다 韓語로 添記하는 吐라면 日本에 있어서의 宣命書는 文章 自體가 純國文體의 漢字文의 節句마다에 助詞나 用言의 活用語尾 등으로 添記하는 表記法임을 알 수 있다.

9. 漢字의 音讀・訓讀・音借・訓借 등으로 土語의 노래를 表記한다.

新羅 鄉歌의 表記體를 <鄉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鄉札>이란 用語는 「均如傳」譯歌功德分
 에 꼭 한 번 보이고 있으니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上之鴻儒碩德 莫解鄉謠…… 鄉札似梵書連布 彼土難語

이와 같은 記錄을 根據로 오늘 鄉歌 表記法 全般을 鄉札이라고 부르고 있다⁹⁴⁾ 함은 上述한 터이다.

이 鄉札은 漢字의 借字表記에 있어서는 가장 發達한 表記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것은 歌謠의 表記란 散文表記와는 달리, 至極히 奧妙한 人間의 精神의 細部까지 表記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日本의 借字表記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日本의 表記史에 있어서도 그들의 借字表記가 그들의 成型 最古의 歌謠인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의 表記에 이르러 最高度로 發達함을 볼 수 있었으니, 이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의 表記體를 <萬葉假名>(manyogana)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新羅의 歌謠인 鄉歌는 「三國遺事」에 14首, 「均如傳」에 11首, 都台 25首가 鄉札 表記로 遺傳하나, 이미 使用法이 廢止된 借字表記法으로 記錄되어 있어서 이의 讀解는 至難한 學的 課題가 되어 왔다. 먼저 1918年 日人 學者 金澤庄三郎이 遺事 收錄 鄉歌中 <處容歌>한 首에 대한 試譯과 羅馬字 音讀을 「朝鮮彙報」에 發表함으로써 學的 解釋의 濫觴을 이루더니, 1923年 日人 學者 鮎貝房之進이 <薯童謠・風謠・處容歌>에 대한 解釋을 試圖하였고, 1929年에 日人 學者 小倉進平이 遺存 鄉歌 全作品에 대한 語學的인 解釋을 加하였다. 小倉氏의 研究가 發表된 後 十三年에 梁柱東에 의하여 「古歌研究」가 公刊됨으로써 우리 國語國文學者에 의한 鄉歌 解釋이 이루어지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鄉札表記法에 의하여 記錄된 鄉歌의 完譯에는 이르지 못한 感이 있다. 處容歌 한 首를 들고 鄉札表記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94) 沈在箕,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對하여”(「韓國學報・I」一志社, 1975・겨울, 創刊號), p.11.

東京明期月良	석 불 불기 드래
夜入伊遊行如可	밤드리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드러아자리보곤
脚烏伊四是良羅	가로리네히어라
二盼隱吾下於叱古	둘흔내해엇고
二盼隱誰支下焉古	둘흔뒤해언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뒤내해다마른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앗아늘엇다호릿고

(梁柱東 解讀)

新羅人은 鄉札이란 漢字의 借用表記로써 鄉歌를 創作表記하기에 이름으로써 借字表記로써 感情의 微妙한 細部까지 表記해 낼 수 있었다.

日本에 있어서의 借字表記法도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를 表記하기에 이름으로써 最高度로 發達하였다.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의 表記體系를 萬葉假名(mannyogana)이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이 萬葉假名이 創案됨으로써 上代 日本人의 眞率한 感情의 表出을 記錄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古事記」(712AD)와 「日本書紀」(720AD)에 共히 第一歌로 收錄되고 있는 <스사노오노미코도의 노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古事記」一. 須佐之男命의 歌謠

夜久毛多都	八雲立つ
伊豆毛夜弊賀岐	出雲八重垣
都麻菴微爾	妻籠みに
夜弊加岐都久流	八重垣作る
曾能夜弊賀岐袁	その八重垣を

(相磯貞三 解讀)

「日本書紀」一. 素戔嗚尊의 歌謠

夜句茂多菟	八雲立つ
伊都毛夜霸餓岐	出雲八重垣
菟磨語味爾	妻籠みに
夜霸餓枳菟俱慮	八重垣作る
贈酒夜霸餓岐廻	その八重垣を

(相磯貞三 解讀)

日本の 神話에서 新羅와도 關係가 깊은 <스사노오노미코도>가 出雲(idumo)國에 新宮 須賀宮(suganomiya)을 세웠을 때, 거기서 구름이 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지었다는 노래인 것이다. 「古

事記」와 「日本書紀」에 다 함께 第一歌⁹⁵⁾로 收錄되고 있어서, 關聯된 史的 資料로는 年代가 가장 오랜 歌謠인 것이다. 前後 兩資料에서 全編이 一字一音節의 借音 表記인 것이요, 借用된 漢字에는 多少 差異가 있으나 讀音에는 相違가 없다. 形式은 五·七·五·七·七의 日本의 傳統的인 노래인 和歌(waka)의 形式을 取하고 있으며 이 形式이 너무나 整齊되고 있는 點으로 보더라도 그리 古形의 歌謠가 아님은 窺이 알 수 있다.

鄉歌와 記紀歌謠의 表記法을 比較해 보면 萬葉假名の 表記法이 鄉札의 表記法의 影響을 받은 것만은 숨길 수 없다. 韓日 兩民族의 歷史的 文化的 緊密性을 考慮할 때, 萬葉假名과 鄉札과의 사이에도 漢文借字表記의 同質的 並行性을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⁹⁶⁾

鄉歌 表記法에 대해서 梁柱東은 다음과 같이 體系를 세워 풀이하였다.⁹⁷⁾

(A) 系列

一. 義字

1. 音讀 善化公主主隱……善化公主
法界毛叱所只……法界
2. 訓讀 去隱春……가·분
心未筆留……막음·분
3. 義訓讀 今日此矣……오늘
何如爲理古……엇다

二. 借字

1. 音借 薯童房乙……을
君隱父也……은·여
2. 訓借 民是……이
3. 義訓借 遊行如可……다

(B) 系列

1. 正借 原音·訓을 그대로 借한 것
2. 轉借 原音·訓을 비슷이 借한 것
3. 通借 原音·訓의 通音을 借한 것
4. 略借 原音·訓의 一部를 借한 것
5. 反切 二字의 音·訓을 反切한 것
6. 戲借 義·音·訓을 짓궂게 借한 것

95) 「古事記」收錄 歌謠 113首, 「日本書紀」收錄歌謠 128首에는 제각기 歌謠 固有番號를 붙이고 있다.

96) 李鍾徹, 前掲書, p. 110.

97) 梁柱東, 前掲書, pp. 60~61.

梁柱東의 上記 表記體系中 (A)·(B)系列의 區分은 南豊鉉의 添加이다. 南豊鉉은 이 區分에서, (A)系列이 借字表記體系를 이루는 基本原理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B)系列은 借字體系가 運用上에 나타나는 變異에 대한 分類라고 하였다. 南豊鉉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借字 體系를 세우고 있다.⁹⁸⁾

漢字	{	音	讀 → 音讀; 借字를 音으로 읽고, 그 원뜻을 살림.
			假 → 音假; 借字를 音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씀.
	訓	讀 → 訓讀; 借字를 訓으로 읽고, 그 원뜻을 살림.	
		假 → 訓假; 借字를 訓으로 읽되, 表音符號로만 씀.	

南豊鉉은 表記法上의 用語와 區別하여 用字法上의 借字는 <假字>라 부르고 있다. 沈在箕는 借漢字表記體系를 먼저 <釋借>와 <音借>로 나누고, <釋借>를 다시 <全釋借>와 <部分釋借>로, <音借>를 다시 <全音借>와 <部分音借>로 分類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⁹⁾

日本の 萬葉假名の 表記法에 대해서는 일찌기 本居宣長(1730~1802)이 分類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¹⁰⁰⁾

1. 假字 一音節 一字의 表記(이것은 「借音」이다; 筆者註)
2. 正字
 - a. <アメ>를 <天>, <ツチ>를 <地>로 쓰는 類로서 字意와 語意가 一致한 것
 - b. <股>를 <俣>로, <橋>를 <椅>로 <蜈蚣>를 <吳公>으로 쓰는 類.
3. 借字 字義를 取하지 않고 다만 그 訓을 다른 뜻으로 借用하여 쓰는 것이것은 「借訓」이다; 筆者註)
4. 上掲 三種의 混用
5. 特殊表記로서 <クサカ>를 <日下>로, <カスガ>를 <春日>로, <アスカ>를 <飛鳥>로 쓰는 類

本居氏의 이 分類는 「古事記」의 表記法을 主觀的으로 分類한 것으로 보인다.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의 表記體를 <萬葉假名>이라고 하거니와 그 表記法의 分類를 보면 아래와 같다.¹⁰¹⁾

1. 音假名	正音	……	りきしほうしがき 力士·法師·餓鬼
		……	あめ　　ところ 阿米(天)·許己呂(心)
	借音	……	き　　さ
		……	吉·散

98) 南豊鉉, “借字表記法の 用字法에 對하여”(蘭汀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80), p. 456.

99) 沈在箕,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對하여”(韓國學報·I, 一志社, 1975·겨울, 創刊號), p. 8.

100) 倉野憲司*, 「古事記·祝詞」(日本古典文學大系·I, 岩波書店, 1968), pp. 19~20.

101) 秋山 虔, 前掲書, p. 119.

2. 訓假名 正訓 やま あめつち
 山・天地
 借訓 まつ なつかし
 待(松)・夏樿(懷)
 義訓 かたぶく ふゆ
 西渡・寒
 戲訓 いづ
 重二(四)・山上復有山(出)

郷札(梁柱東)과 萬葉假名(秋山 虔)의 表記體系를 比較하면 아래와 같다.

郷 札			萬 葉 假 名		
	區 分	表 記 例	區 分	表 記 例	
音	音 讀	善化公主(선화공주)	正 音	方主(りきし)・法師(ほうし)	
	音 借	驪童房乙(을)・君隱(은)	借 音	阿米(아메)・許己呂(こころ)	
	略 音	毛多乃乎尸(「문」의 「ㄷ」)	略 音	吉(き) (「きち」의 略音「き」)	
訓	訓 讀	去隱春(가・봄)	正 訓	山(야마)・天地(아메つち)	
	訓 借	民是(이)	借 訓	待(まつ・松)・夏樿(なつかし) 懷	
	義 訓	遊行如可(다)	義 訓	西渡(かたぶく・傾)	
	戲 訓	城上人(아으)・打心(아으)	戲 訓	重二(し・四)・山上復有山(いづ) 出	

B. 漢字를 利用하여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韓土에서나 日本에서나 傳來된 漢字를 利用하는 동안 劃數가 많은 漢字는 줄여서 略字를 만든 다든가, 既存의 漢字를 合하여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낸 다든가 하는 漢字의 變形・改造의 現象을 볼 수 있었고, 또한 漢字의 構成原理를 그대로 利用하여 새로운 文字, 이른바 國字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던 것이며, 이 밖에 漢字를 變形하거나 縮約하여 새로운 表音文字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던 것이니, 이와 같이 漢字를 利用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내는 段階에 있어서의 韓日兩民族의 對應關係를 알아보기로 한다.

10. 漢字를 變形・改造한다.

漢字를 變形하거나 改造하는 方法으로는 既存의 漢字中 劃이 너무 많아서 書記하는데 번거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의 <略字>의 경우를 지적할 수 있고, 또한, 既存의 漢字로 意思表示가 如 意치 않았을 때, 既存의 漢字를 使用하여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내는 <合字>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a. 略字

韓土에서나 日本에서는 外來文字인 漢字를 日用하여 보는 過程에서, 그 劃數가 많은 漢字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번거로움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한 번거로움에 對應하는 過程에서 언제 누구로부터라는 區別도 없이 漢字의 簡化方案에 대한 試圖가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漢字의 簡化方案에 대해서는 漢字의 본고장인 漢土에서 오히려 더욱 切實한 問題로 擡頭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漢字의 簡化方案에 대해서 北京大學 敎授 黎錦熙는 다음과 같이 八種의 方法이 있음을 提示하고 있다.¹⁰²⁾

- ① 劃이 많은 글자는 획을 줄여 輪廓만 남긴다.
- ② 草書를 楷書화한다.
- ③ 多劃의 一部分을 떼낸다.
- ④ 多劃의 一部分을 간단한 형식으로 바꾼다.
- ⑤ 古體字를 쓴다.
- ⑥ 音符를 改簡한다.
- ⑦ 簡體字를 따로 만든다.
- ⑧ 同音字로 代身한다.

이는 오늘의 中國 本土에 있어서의 漢字簡化方案의 한 類型임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다. 中國의 簡化字, 곧 略字를 보면 같은 文化圈이면서도 韓土나 日本과는 많이 相違함을 볼 수 있으나, 韓土와 日本은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서로 비슷한 簡化方案을 取하고 있다. 上揭 黎敎授의 八種의 類型을 韓日의 漢字의 簡化方案에 對應시켜 그 例字를 摘出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劃이 많은 글자는 획을 줄여 輪廓만 남긴다.
 円(圓), 国(國), 写(寫), 庄(歷), 区(區), 团(團)
- ② 草書를 楷書화 한다.
 為(爲), 与(與), 俠(俠), 侷(侷), 來(來),
- ③ 多劃의 一部를 떼낸다.
 宝(寶), 声(聲), 処(處), 号(號), 医(醫)
- ④ 多劃의 一部를 簡單한 形式으로 바꾼다.
 覲(覲), 恋(戀), 乱(亂), 辞(辭), 沢(澤), 鋳(鑄)
- ⑤ 古體字를 쓴다.
 礼(禮), 仏(佛), 岳(嶽), 庙(廟←廟)

102) 成元慶, “中共의 簡化字와 行草書와의 比較研究”(建國大學校, 國語國文學硏究會「文潮」第八輯, 1983), pp. 90~91.

⑥ 音符를 改簡한다.

灯(燈), 伝(傳), 浅(淺)

⑦ 簡體字를 따로 만든다.

伞(傘), 会(會), 实(實)

⑧ 同音字를 代身한다.

昏(婚), 党(黨), 令(齡), 竟(鏡), 升(昇)

韓日間の 略字 現象은 兩民族의 歷史的 地理的 文化的 特殊關係로 하여 거의 共通의 現象을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⑦의 <伞>(傘)은 日本에서는 쓰이나 韓國에서는 쓰이지 않고, ⑧에 該當이 될 수 있는 <臺灣>을 <台灣>으로 略字化함은 日本이나 中國에서는 同音이어서 略化가 通用되나 韓國音으로는 <臺>(태)~<台>(태)는 音이 다르기 때문에 同音 代字가 될 수 없다. 日本의 경우 <關>→<關>→<斗>도 俗字로 通用되나 이는 <關>와 <斗>의 音이 다른 韓國에서는 通用되지 못한다.

b. 合字

略字의 경우는 漢土에서 輸入하여 온 漢字를 놓고 變形·改造한 경우가거나 적은 劃의 同音文字로 代用하는 경우이지만, 여기 合字의 경우는 輸入하여 온 既存의 漢字를 再結合하여 새로운 概念을 表示하는 글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니, 그 方法은 漢字의 構成原理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韓國의 合字

功+夫 → 契, 공부부

大+口 → 呑, 대구구(魚名)

木+生 → 性, 장승생

木+藏 → 藏, 장릉장

木+散 → 散, 산자산

山+占 → 帖, 고개점

木+保 → 椽, 들보보

木+飛 → 椽, 사다리비

水+田 → 畚, 논담

代+土 → 岱, 집티대

2) 日本의 合字

人+車 → 俸, くるま(火力車)

人+動 → 働, はたらく(勞動)

口+入 → 吠, かます(가마니)

木+山 → 植, そま(樵人)

山+上+下 → 峠, とうげ(고개)

火+田 → 畑, はたけ(밭) (田)은 (畚)

白+田 → 畠, はたけ(밭)

入+込 → 込, こむ(入滿之意)

十+道 → 辻, つじ(十字路)

魚+弱 → 鱈, いわし(멸치)

合字에 있어서는 韓日間に 字體의 差를 볼 수 있으나, 그 原理는 마찬가지로의 漢字의 構成原理를 따르고 있다. 다만 韓國의 경우는 音으로 읽고 訓으로 새기지만, 日本의 경우는 特殊한

경우가 아니고는 音은 不必要한 것이다.¹⁰³⁾

11. 漢字의 構成原理를 利用하여 國字를 만들어 낸다.

漢字의 字體를 갖고 있으면서도 漢土에는 없고 韓國이나 日本에서 만들어진 文字를 韓國이나 日本에서는 國字라 부르고 있다.

위에서 考察하여 온 바인 漢字의 變形·改造中 漢字의 簡化方案인 略字의 形成은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合字의 경우는 既存의 文字를 가져다 再構成하는 것이고, 原文字의 뜻에서 아주 離脫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國字는 既存의 文字와는 거의 관계없이 이루어진 새로운 文字라고 할 수 있다.

a) 韓國의 國字

①	葩	눅을 눅	砵	망이름 적	坵	못막이 동
	媿	시집 시	鑿	쌍희 희	閔	읽을 서
	噴	입에 넣을 람	儼	엄나무 엄	數	돈피돈
	縻	망이름 자	闕	문바람 평	旆	하며며
②	𦉳	솔솔(塗刷具)	𦉳	줄줄(繩條)	𦉳	망이름 얼
	𦉳	망이름 엇	𦉳	그뿐	𦉳	곳곳(處)
	𦉳	망이름 것	𦉳	망이름 못	𦉳	망이름 갈
	𦉳	걸걸(掛)	𦉳	돌돌	𦉳	종살이름 물

여기에 보인 韓國의 國字 大部分이 앞에 보인 合字와 다름이 없으나 ①에서 보인 國字는 그런대로 뜻글자(表意文字)로서의 構成原理에 따른 造字라 하겠고, ②에서 보인 例字들은 <己>音·<人>音의 末音表記를 위한 造字가 大部分이다. 따라서 그 訓도 <망이름>의 보기가 두드러지게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땅 이름으로는 漢字名 이전에 오랜 傳統的 土語名이 있었고, 이 土語名을 原音대로 記錄하자고 하니 既存의 漢字로는 表記가 不可能한 데서 이러한 國字 製作의 契機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b) 日本의 國字

俟	また(叉)	凧	たこ(紙鳶)	凧	こがらし(秋末初冬風)
凧	なぎ(風浪止)	涕	あもかけ(面影)	条	くめし(陳臭米)
糲	もみ(穀皮)	拵	ます(升)	喰	くう(食)
攄	かし(떡갈나무)	糰	こうじ(麴)	標	いろどり(采色)
攄	たすき(肩條)	楢	すぎ(杉)	辻	すべる(滑地失脚)
鱈	ほら(큰송어)	鮫	このしろ(전어)	鱈	かすのこ(청어알)
鱈	さば(고등어)	鱈	たら(大口)	佛	しきみ(佛前 供木)
佛	さかき(神前供木)				

103) <働>(はたらく)의 경우는 <勞働>(ろうどう)라고 하여 音으로 읽기도 한다.

韓日의 國字를 概觀하건대, 韓國의 경우는 觀念語 表記를 위한 國字는 적은 反面 <근><人> 등의 末音表記의 必要性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많거니와, 이는 그대로 吏讀나 口訣의 創作 契機와 相通한이라 하겠다. 한편 日本의 경우도 漢字의 造字 原理에 의하여 만들어진 國字가 많고, 그 國字의 字數도 韓國에 比하여 越等이 많다. 日本의 경우는 韓土와는 달리 漢字의 訓讀이 시작된 이후 계속 오늘에 이르기까지 訓讀하여 오는 實情이다. 이렇게 訓讀을 해 오는 過程에서 <倭>(あもかげ)·<風>(こがらし) 등 日本語 固有의 觀念을 表記해 내기 위한 새로운 文字의 必要性이 있어 韓土에서보다도 그 造字가 盛行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C. 漢字를 變形 또는 縮約하여 表音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韓日 兩民族이 漢字에 接하게 된 以來, 時間的 先後는 달랐지만, 그 受容과 對應方法은 늘 類似的한 것이었음을 위에서 살펴왔다. 그러나 이 段階에 있어서는 서로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곧 韓民族은 漢字에서 略體의 口訣까지를 만들어 表音符號처럼 使用하면서도, 이를 韓語表記를 위한 表音文字에로의 體系化에는 이르지 못한 채 消滅시키고 말았지만, 日本에서는 이 漢字를 變形 또는 縮約하여 日本民族 固有의 音節文字인 <가나>(假名)를 만들어 오늘까지도 日用하고 있는 것이다.

12. 口訣과 그 略體 및 發展의 限界

漢字는 表意文字인 것이다. 이 表意文字를 表音文字的인 用法으로 使用하기는, 韓半島에서는 三國時代 以來의 鄉札·吏讀·口訣 등의 借字表記에서 있어 왔음은 위에서 考察해온 바와 같다. 그러나 漢字를 全字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이를 縮約 變形하여 日本에 있어서의 片假名(katakana)과 같이 오직 表音文字로만 쓰기는 韓半島에서는 口訣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

韓土의 表記史에서 借字表記體를 便宜上 鄉札·吏讀·口訣로 分類하고 있기는 하나 根本적으로는 서로 區分할 수 없는 本質的인 共通點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發生時期에 있어서도 前後를 論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借字表記法에서 가장 發達한 表記體가 鄉札이었다면, 이 鄉札을 前後한 前期 吏讀과 後期 吏讀를 想定할 수 있고, 또 이 吏讀를 前後하여, 吏讀文의 準備期로서의 前期 口訣이 있었는가 하면, 一方, 吏讀文의 萎縮期로서의 後期 口訣도 想定할 수 있다 하겠다.

借字表記法이라는 面에서는 鄉札이나 吏讀나 口訣이 根本적으로 區分이 될 수 없는 것이면서도, 오늘, 그 文體上으로는, 鄉札文이 純國文體요, 吏讀文이 國漢文混用體라면 口訣文이란 純漢文體여서, 漢文을 읽을 때 句節마다 이를 添記, 文法的 關係를 表示하기 위하여 插入한 이른바 吐가 달린 文體인 것이다. 이래서 漢文(中國語文章)을 毀損함이 없이 그 文章을 可能한 限 韓國語文章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읽어가는 方法으로 口訣의 必要性이 생겼으리라는 것은 現存한 口訣資料에 의해서도 쉽게 推測될 수 있는 事實이다. 이러한 口訣의 特徵은 後期 口訣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하겠으니, 借用된 漢字로는 比較的 劃數가 적은 字일 뿐 아니라 이를 다시 略字化하기도

했던 것이다. 口訣에 借用된 漢字로는 다음과 같은 字들이 指摘되고 있다.¹⁰⁴⁾

1) 可>可,	가	25 小,	소	49 屎,	히
2) 加,	더	26 所,	소	50 去>去,	거
3) 巨,	거	27 時>寸,	시	51 豆,	두
4) 古>口,	고	28 是>ㄴ	시/이	52 斗,	두
5) 果>木,	과	29 申,	신	53 祿>泉,	록
6) 那>月,	나	30 牙,	아	54 了,	료
7) 女,	여	31 兒>旧	어	55 戾,	러
8) 尼>匕,	니	32 安,	은	56 未,	미
9) 多>夕,	다	33 厓>厂	애/에	57 示,	시
10) 大,	대	34 也>ヤ	야	58 阿,	아
11) 代>代,	대	35 於>令	어	59 邑,	읍
12) 刀,	도	36 言,	언	60 伊,	이
13) 等>ホ	등	37 亦,	여	61 之,	지
14) 羅>罒>糸,	라	38 午,	오	62 知,	디
15) 繼>畀>戶,	리	39 五,	오	63 土,	토
16) 奴,	로(노)	40 溫>品,	온	64 下,	하
17) 里>日	리	41 臥>卜,	와	65 乎>フ>ノ,	호
18) 馬,	마	42 爲>フ,	하	66 戶,	호
19) 面> ,	면	43 隱>尸>	은/은	67 忽,	홀
20) 彌>弥>尔,	며	44 乙,	을/를	68 沙,	사(사)
21) 飛>邑>邑,	늑	45 底>厂,	지	69 矣,	의/의
22) 土,	사	46 沮>且,	저	70 印,	인
23) 舍>介,	사	47 丁,	정		
24) 西,	서	48 叱,	시		

口訣에 借用된 上掲의 漢字中 <是>(ㄴ : 이), <飛>(邑 : 늑), <爲>(フ : 하), <加>(カ : 더)만이 訓
借이고 나머지는 모두 音借에 該當된다.

口訣의 略體와 對應되는 것이 日本 漢文章의 <訓點>인 것이다. 訓點이란 漢文文章을 읽을
때 文章의 原型은 그대로 維持하면서, 漢文文章을 日本語에 가깝게 읽기 위하여 漢字의 右下에
그 語句의 (活用)語尾나 助詞 등을 加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漢字 訓讀을 위한 一種의 補助的
記號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訓點에는 漢字의 全字를 쓰는 것이 아니라 略字를 쓰게 되
는 것이므로, 이는 그 略體化의 方法이나 加施 添記의 方法이 韓土의 口訣과 酷似하다 하겠다.
日本에서는 이 訓點의 方法을 發展시켜 音節文字인 <가다가나>(片假名)를 創案해 내고 오늘에도
使用하고 있으나 韓土의 口訣은 그 以上의 發展을 期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韓國語의 音

104) 崔勳範, “口訣研究”『국어학문학』 55~57집명호, 1972), p. 531.

節數가 日本語에 比較서는 엄청나게 많음에서 口訣의 體系化를 통한 發展을 가져오지 못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13. 日本의 訓點과 假名

1) 訓點

韓土의 口訣文章에 對應되는 日本의 漢文文章을 생각할 때 먼저 注目되는 것이 日本의 漢文文章을 읽을 때의 訓點인 것이다.

漢文 古典을 日本語로 解釋하면서 읽을 때 原型을 그대로 維持하면서 읽어 내려 가는 것이 訓讀이거니와, 이렇게 漢文을 日本式으로 읽기 위해서는 漢字의 右下에 그 語句의 (活用)語尾나 助詞 등을 文語文法에 따라 加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訓點인 것이다.

日本의 漢文文章에 있어서의 訓點 加施의 비롯됨은 平安時代初期(9世紀初) 奈良의 僧侶들 사이에서, 佛典을 解讀할 必要性 때문에 略體假名를 쓰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漢文 訓讀을 위한 一種의 補助的 記號로서 이것이 곧 訓點인 것이다. 이 訓點 加施가 뒤에 가서는 日本의 表音文字인 <가다가나>(片假名)의 創製에로까지 發展한 것이다.

이 訓點이란 漢字의 全字를 쓰는 것이 아니라, 漢字의 略體化에 의한 一種의 表音記號로서, 그 略體化의 方法은 韓土에 있어서의 略體口訣과 같은 方法인 것이다. 그 具體的인 方法은 漢字의 劃의 最初의 部分(奈)나 最後의 部分(奴)又을 쓰고, 原則的으로 中間部分을 쓰는 일은 없었다. 이것이 後日의 <가다가나>(片假名)인 것이다.

이와 같이 平安初期에는 訓點語의 表記에 쓰였던 것이, 後期에 가서는 辭書에 있어서의 漢字의 訓注로, 그리고 平安末期로부터 鎌倉時代에로 내려오면서는 漢文訓讀文體·和漢混淆文體 등에 쓰이는 한편 注釋書 등에서 많이 使用되면서 漸次 一般化되기에 이른 것이 <가다가나>(片假名)에로의 發展을 본 것이다.

2) 假名(kana)

漢字를 受容하는 過程에서 韓土에서는 漢字의 音과 訓을 借用하여 精神의 內面을 表象하는 鄉歌를 創作 記錄할 수 있는 데까지 發展시켰던 것이라면, 日本에서도 韓土에서와 마찬가지로 漢字의 音借 訓借로서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를 創作 表記하였던 것이다. 韓土에서의 鄉歌의 表記體를 鄉札이라 부르고 있고, 日本의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의 表記體를 萬葉假名(manyogana)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韓土의 鄉札은 高麗 初葉까지 使用되었고, 그 表記法은 吏讀·口訣에서 命脈을 維持하다가, 李朝初에 韓族 固有文字인 <한글>이 創製되면서 없어져 버린 反面, 日本에서는 萬葉歌謠를 表記해 냈던 萬葉假名을 發展시켜 音節文字인 <가다가나>(片假名)와 <히라가나>(平假名)를 創製해 냈으니, 이 두 書體는 오늘에도 日本 固有의 傳統的 文字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韓土에서의 借字表記가 日本의 假名과 같이 整然한 體系로 發展하지 못한 原因에 대해서 崔勳範은

첫째, 漢字의 原形을 發展시켜 우리말 音韻體系에 맞는 略字를 創案하지 못하였고
둘째, 漢字의 表意文字의 領域을 脫退하지 못하고 實辭表記에 訓借를 使用하였음¹⁰⁵⁾

을 指摘하고 있으나, 韓國語의 音節數가 日本語와는 比較도 되지 않을 만큼 많고 複雜하여, 이의 體系化가 어려웠다는 데 보다 큰 原因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萬葉假名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各音節에 대해서 多數의 字母가 使用되었던 것이나, 奈良時代 末期(8世紀末)에 이르면서 比較의 表記하기에 簡便한 文字로 限定되기 시작하였다. 이 簡化의 傾向이 訓點을 거쳐 漢字이 劃의 省略을 促進시켜 <가다가나>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면, 同一한 理由로 해서 漢字의 草體化를 促進시켜 <히라가나>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日本書紀通證」에는 日本의 假名(kana)文字가 韓土人(高麗人)으로부터 傳하여졌다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어 注目된다.¹⁰⁶⁾

釋曰問 假名字誰人所作 答師說 大藏省御書中 有肥人之字六七枚許 其字皆用假字 或其字不明 或乃川等字明 見之若以之爲始歟(註略)

코마 코마
松下氏曰……肥人者高麗人也 肥人傳彼國字 故稱之歟 今西國人 謂文字異體 曰書肥後字 肥前肥後 其國近高麗(今按延喜式有肥後耽羅國) 今按孝謙帝御宇 下道眞備作旁假字 曰大和假字(註略) 桓武帝御宇 護命空海作母假字 曰出雲假字

이 글에는 假字(kana)의 由來에 대한 說이 보이고 있다. 곧 大藏省 所藏 文書中 肥(koma)人이 쓴 것이라는 假字(kana)가 있는데, 肥人이란 高麗(koma, 「高句麗」를 이렇게 쓰기도 함)人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旁假字(katakana, 片假名)는 眞備(makibi 693~775AD)가 만든 것인데, 본래의 이름은 大和假字(yamatokana)라 하였고, 오늘의 母假字(irofakana, 平假名)는 空海(kukai, 弘法大師, 775~835AD)가 만든 것인데, 이를 出雲假字(idumokana)라고 하였었다는 것이다. 곧 假字(kana)의 淵源은 高麗人에 있다는 것이며, 오늘의 片假名(katakana)과 平假名(hiragana)은 眞備(makibi)와 空海(kukai)가 創造한 것이라고 記錄하고 있으나, 이 創造說을 日本 學界에서는 俗說¹⁰⁷⁾에 不過한 것으로 解析하고 있다. 이는 韓土의 訓點을 薛聰이 만들었다는 記錄과도¹⁰⁸⁾ 비슷한 說이다. 여기서의 <高麗>의 koma는 <高麗>가 아니라 <百濟>라고 본다.¹⁰⁹⁾ 이 koma를 <熊津> <熊川>의 <곰>이라고 볼 때, 이는 日本의 漢字傳來說과도 關聯이 있는 <百濟>로 解釋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105) 上掲論文, p. 521.

106) 谷川士清, 「日本書紀通證」, 卷一·彙音, 寶曆二年(1752).

107) 秋山 虔, 前掲書, p. 216.

108) 「大明律直解」跋文, 「我邦三韓時 薛聰所製 方言文字 謂之吏讀云云」

109) 「梁書」諸夷傳, 百濟條에는 「號所治城曰固麻云云」이 있고, 「日本書紀」雄略天皇紀二十一年條에는 「日本舊紀云, 以久麻那利賜末多王, 蓋是誤也, 久麻那利者, 任那國下哆呼利縣之別邑也」同書, 齊明天皇六年條에는 「達率餘自, 進據中部久麻怒利城云云」이 보인다.

3) 가다가나(片假名)

〈가다가나〉(片假名, 「日本書紀通證」에는 「旁假字」로 記錄되고 있음)은 〈히라가나〉(平假名)와 마찬가지로 上代の 萬葉假名에서 根源을 發하고 있다. 〈히라가나〉가 漢字의 草體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다가나〉는 漢字의 略體化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成立過程을 보면 平安時代初期(九世紀初) 奈良의 僧侶들의 社會에서 佛典을 解讀할 必要性으로 하여 略體假名을 쓰기 시작한 것이니, 먼저, 訓點(漢文訓讀을 위한 補助記號)으로서 發生하기 시작한 것이다. 韓土에서의 口訣의 發生이 經書 등의 漢籍을 解讀하는 便利를 위하여 發生하였다는 事情과 同一한 契機이고, 口訣中에서도 略體口訣은 그 發生의 契機와 略體化의 方法까지도 이 〈가다가나〉와 相應함을 볼 수 있다.

漢字의 略體化의 方法은 省劃의 方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漢字의 劃의 最初의 部分(「阿」의 「ア」, 「伊」의 「イ」)이나 最後의 部分(「奴」의 「ヌ」, 「利」의 「リ」)을 取함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平安初期에는 訓點語의 表記를 위하여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 그 뒤 辭書 등의 漢字의 訓注에도 使用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平安末記(8世紀~12世紀)로부터 鎌倉時代(12世紀末)로 내려오면서는 漢字와 〈가다가나〉 混用의 注釋書와 說話集이 나오게 되면서 〈가다가나〉의 使用은 一般化되었다. 明治時代 以降부터는 주로 文語體의 法令·法律·天皇의 意思를 表示하는 文書인 詔勅 등의 表記에 쓰였던 것이나, 오늘에는 주로 外國語의 國字表記에 使用하는 등 特殊한 경우에 한하여 使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 省劃의 方法도 처음에는 사람에 따라 다른 字體를 썼던 것이나, 平安末期에 이르러서는 大體로 字體가 統一되었고, 現行의 字體로 正式으로 統一된 것은 明治三十三年(1900AD)인 것이다.

十八世紀 中葉에 이루어진 「日本書紀通證」에 보이는 〈가다가나〉(旁假字)의 省劃의 方法은 아래와 같다.¹¹⁰⁾

ア 阿省, 文音	イ 伊省, 文音
ウ 宇省, 文音	エ 江省, 文訓
ヲ 乎省, 文音, 湖相通	カ 加省, 文音
キ 伎省, 文, 或幾艸變並音	ク 久省, 文, 吳音
ケ 氣省, 文, 吳音	コ 居省, 文, 吳音
サ 肆省, 文, 吳音	シ 之艸變如之邊
ス 須省, 文, 吳音, 又作爪 左字反須爪 全體音	セ 世省, 文, 吳音
ソ 曾省, 文, 漢音	タ 多省, 文音
チ 知省, 文音, 或千全體, 訓	ツ 川 全體訓, 或 州省文, 州音都見釋
テ 天省, 文, 音略	ト 止省, 文, 或省省文並訓
ナ 奈省, 文, 吳音略	ニ 二全體, 吳音或 仁省文 吳音略

110) 谷川士清, 前掲書, 卷一, 附錄

- | | |
|--------------------------------|-----------------------------|
| ヌ 奴省, 文, 吳音 | ネ 子全體訓, 又作ネ 祿省文, 吳音略 |
| ノ 乃省, 文, 奈上聲, 吳音略相通 | ハ 八全體音略 |
| ヒ 比省, 文音 | フ 不省, 文音 |
| ヘ 邊省, 文音略, 或ヘ全體音
弗 吳音略 相通 | ホ 保省, 文音略, 又作 同字 |
| マ 末省, 文, 吳音略 | ミ 美省, 文, 吳音又作混阿
蓋彌省文, 吳音 |
| ム 牟省, 文, 吳音語末牟韻清
揚者用ノ字出梵字句點 | メ 女省, 文訓 |
| モ 毛省, 文, 吳音略 | ヤ 也省, 文音 |
| ユ 由省, 文, 音略 | ヨ 與省, 文音 |
| ラ 良省, 文, 吳音略 | リ 利省, 文音 |
| ル 流省, 文, 吳音 | レ 礼省, 文音略 禮異體 |
| ロ 呂省, 文, 吳音 | ワ 和省文, 吳音又作禾同字 |
| キ 井全體訓 | エ 慧省, 文, 吳音古書慧作慧 |
| オ 於省, 文音, 古書於作於 | |

圖表中 <阿省>은 <阿>字의 劃을 省略하였음이고, 거의가 吳音에 依據 取하였음도 알 수 있다.

明治三十三年(1900AD)에 統一된 <가다가나>는 아래와 같다.¹¹¹⁾

假名	原漢字(取部)	假名	原漢字(取部)	假名	原漢字(取部)	假名	原漢字(取部)	假名	原漢字(取部)
ア	阿(偏)	イ	伊(偏)	ウ	宇(冠)	エ	江(旁)	オ	於(偏)
カ	加(偏)	キ	幾(全體變形)	ク	久(部分)	ケ	介(部分變形)	コ	己(部分)
サ	散(部分變形)	シ	之(全體變形)	ス	須(部分變形)	セ	世(全體變形)	ソ	曾(部分)
タ	多(部分)	チ	千(全體變形)	ツ	州(全體變形)	テ	天(部分變形)	ト	止(部分)
ナ	奈(部分)	ニ	二(全體)	ヌ	奴(旁)	ネ	裕(偏)	ノ	乃(部分)
ハ	八(全體)	ヒ	比(旁)	フ	不(部分)	ヘ	部(旁變形)	ホ	保(旁部分)
マ	万(全體變形)	ミ	三(全體變形)	ム	牟(冠)	メ	女(部分變形)	モ	毛(部分)
ヤ	也(部分變形)	イ		ユ	由(全體變形)	エ		ヨ	與(部分變形)
ラ	良(部分變形)	リ	利(旁)	ル	流(部分變形)	レ	禮(旁)	ロ	呂(部分)
ワ	和(旁變形)	キ	井(全體變形)	ウ		エ	惠(部分變形)	ラ	乎(全體變形)
ン	(部分變形)								

111) 秋山 虔, 前掲書,

여기 圖表에 나타난 漢字의 略體化의 方案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漢字의 全字	ニ(二), ハ(八)	(2字)
② 漢字의 部分	ク(久), コ(己), ソ(曾), タ(多), ト(止) ナ(奈), ノ(乃), フ(不), モ(毛), ロ(呂)	(10字)
③ 全字의 變形	キ(幾), シ(之), セ(世), チ(千), ヅ(州) マ(万), ミ(三), ユ(由), キ(井), ヲ(乎)	(10字)
④ 部分의 變形	ケ(介), サ(散), ス(須), テ(天), メ(女) ヤ(也), ヨ(與), ラ(良), ル(流), エ(惠), ン(尔)	(11字)
⑤ 漢字의 偏	ア(阿), イ(伊), オ(於), カ(加), ネ(祿)	(5字)
⑥ 漢字의 旁	エ(江), ス(奴), ヒ(比), リ(利), レ(礼)	(5字)
⑦ 旁의 部分	ホ(保)	(1字)
⑧ 旁의 變形	ヘ(部), ワ(和)	(2字)
⑨ 漢字의 冠	ム(牟), ウ(宇)	(2字)

「日本書紀通證」所載의 <旁假字>와 오늘의 <片假名>과 前後 兩圖表를 對照하여 보면

- ① 字數에 있어 前者가 一字 不足한 57字이고 後者는 58字인 것은, 前者에서는 <ム>로 <ン>을 代用하였기 때문이다.
- ② 字順에서 前者에서는 <ヲ→ア行>, <オ→ワ行>인데, 後者에서는 <オ→ア行><ヲ→ワ行>이다.
- ③ 略體化 以前の 原漢字에서 前後가 差를 보여 주는 것이 있으니, <ケ…氣→介>, <コ…居→己>, <サ…井→散>, <マ…末→万>, <ミ…美→三> 등이다.

奈良時代(8世紀)의 母音은 여덟개의 音節의 區別을 가지고 있었으며, 母音과 子音을 合하여 八十七箇의 音節의 區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¹¹²⁾ 日本의 現實音은 通稱 <五十音圖>로 이야기되는 四十八音으로 줄어들었으니, 日本語音에 있어서의 音韻의 變遷도 想像할 수 있다.

日本의 <가다가나>와 韓土의 口訣과는 그 發達過程을 對比해 보면 매우 近似한 點을 發見하게 된다. 新羅의 人名, 地名, 官名 등에서 抽出한 音訓借 表記體에서 母音體系는 大體로 阿(a), 於(ə), 烏(o), 于(u), 伊(i) 등으로 보는 데 比하여, 假名은 ア<阿(a), イ<伊(i), ウ<宇(u), エ<江(e), オ<於(o)라는 母音體系를 가졌다.

이 밖에, 對比가 可能한 口訣과 <가다가나>를 圖表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¹¹³⁾

112) 坂本太郎 外, 前掲書, p. 35.

113) 崔勳範, 前掲書, p. 525.

	漢字	口 訣	假 名	形態가 同一 또는 近似	音이 同一 또는 近似
1	阿	阿 (a)	ア(〈阿) (a)		○
2	伊	伊 (i)	イ(〈伊) (i)		○
3	於	於(〈於) (ə)	オ(〈於) (o)		○
4	加	加 (tə)	カ(〈加) (ka)	○	
5	之	之 (dzi)	シ(〈之) (si)		○
6	多	夕(〈多) (ta)	タ(〈多) (ta)	○	○
7	奴	ヌ(〈奴) (ro)/(no)	ヌ(〈奴) (nu)	○	○
8	女	女 (jə)	メ(〈女) (me)	○	○
9	也	ヤ (ja)	ヤ(〈也) (ja)	○	○
10	乎	フ(〈乎) (ho)	ヲ(〈乎) (wo)		○
11	安	安 (an)	あ(〈安) (a)	○	○
12	知	知 (dzi)	ち(〈知) (dzi)		○
13	爲	フ(〈爲) (ha)	ゐ(〈爲) (ui)		○

※ (11 ~ 13)은 平假名임.

4) 히라가나(平假名)

〈히라가나〉(平假名)의 成立도 上代 萬葉假名(mannyogana)에서 그 根源을 發하고 있다. 이는 또 한 〈가다가나〉의 成立과 거의 同時代였다고 할 수 있다. 平安時代初期(9世紀初)로부터 中期에 걸쳐 특히 女性社會에서 漢字의 草體化(「草가나」라고 하였음) 現象이 進行되면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漸次 優雅한 字體로 洗練이 거듭된 結果, 現行의 字體가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애당초 漢字의 草體化가 특히 女性社會에서 進行되었다고 하는 것은, 女性들이 和歌(waka)라든가 書簡文을 쓰는 데서부터 草體化 傾向이 보이다가, 漸次 日記라든가 一種의 小說의 前身이라고도 할 수 있는 〈物語〉(monogatari)라는 많은 量의 散文까지도 이 草體化 文字로 써 내려가더니, 鎌倉時代(12世紀末) 以降에 와서는 男性들도 이 草體化 文字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萬葉假名(mannyogana)이 一音節에 대해서 여러 漢字의 字母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初期의 〈히라가나〉도 一音節에 對해서 여러 字母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現行의 글자로 統一되기는 〈가다가나〉와 마찬가지로 明治三十三年(1900AD)의 일이다.

現行 〈히라가나〉의 字母(原漢字)와 〈가다가나〉의 字母와의 共通된 漢字는 48字中 31字이나, 現行 글자로 統一되기 以前,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字母를 쓰던 時期에는 더 많은 字母들이 쓰였던 것이므로 오늘은 서로 다른 字母이지만 지난 날에는 모두가 양 쪽에서 쓰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日本書紀通證」의 〈旁假字〉(katakana)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政府에서 政策的으로 字母를 統一시킨 1900年 以前에 이미 오늘의 字母로 거의 統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漢字의 草體化로 이루어진 現行 〈히라가나〉에 對應되는 原漢字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假名	原漢字	假名	原漢字	假名	原漢字	假名	原漢字	假名	原漢字
あ	安	い	以	う	宇	え	衣	お	於
か	加	き	幾	く	久	け	計	こ	己
さ	左	し	之	す	寸	せ	世	そ	曾
た	太	ち	知	つ	川	て	天	と	止
な	奈	に	仁	ぬ	奴	ね	祢	の	乃
は	波	ひ	比	ふ	不	へ	部	ほ	保
ま	末	み	美	む	武	め	女	も	毛
や	也	い		ゆ	由	え		よ	與
ら	良	り	利	る	留	れ	礼	ろ	呂
わ	和	ゐ	爲	う		ゑ	惠	を	遠
ん									

D. 다른 系統의 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漢土에서 創製된 漢字·漢文은 古代 漢文化의 影響을 받았던 隣近으로 傳播될 때에 韓土에서는 이를 어디보다도 먼저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日本列島로 傳達하는 데도 중요한 몫을 맡아 왔다.

元來 漢字는 孤立語를 쓰는 漢土人の 言語를 적는 文字였기에 附着語를 쓰는 韓日兩民族은 輸入初부터 그 言語의 異質性에서 오는 難問題를 克服하기 위하여 語順의 克服, 借字表記法의 開發 등 多樣한 試圖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이 漢字로 自國語의 歌謠까지 表記해낼 수 있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用字法의 開發이 韓土의 鄉札인 것이요, 日本의 萬葉假名(mannygana)인 것이다.

日本은 萬葉假名에서 다시 漢字의 簡體化·草體化에 의한 片假名(katakana)·平假名(hiragana)으로 發展시켜 오늘에도 그들의 固有文字로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보다 앞서 漢字를 輸入하고, 그들보다 앞서 借字表記法을 創案, 實用해 오던 韓土에서는 鄉札이란 表記體로서 鄉歌의 創作 表記까지 이르렀던 것이나, 日本처럼 이를 國字化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附着語인 韓語는 孤立語인 漢語와는 다를 뿐 아니라, 같은 附着語인 日本語보다도 音節數가 많고 屈折이 多樣 複雜하여 日本語 表記를 위한 假名(kana)과 같은 整然한 體系를 세우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에 韓語 表記를 위한 새로운 系統의 文字를 渴望하게 되었다. 韓民族의 意慾이 이 새로운 文字의 創製에로 具體化하던 李朝 初期에 와서 韓土에서는 그 오랜 歷史 속에서 無數한 試圖를 거치면서 使用되어 오던 借字表記法, 그 마지막 命脈이던 口訣마저 消滅되고 만 것이다.

14. 漢字와 關聯이 없는 音韻文字를 만들어 낸다.

韓語 表記를 위한 새로운 文字의 創製를 渴望하여 오던 韓民族은 十五世紀에 이르러 새로운 文字인 訓民正音, 곧 한글을 創製해 내기에 이르렀다.

訓民正音, 곧 한글 創製의 契機에 關해서는 世宗의 訓民正音 序文에 昭詳히 밝혀져 있다. 곧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곧 韓土의 文字인 漢字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以來 이를 使用하여 본 사람이면 누구나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을 實感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克服하는 方法으로 漢字를 國語의 統辭法에 따라 配列한다든가 漢字의 音과 訓을 借用하여 意思를 表記하는 借字法을 써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韓國語의 音節數·音韻體系가 日本語처럼 單調롭지 못하여 音借表記法에도 限界點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니, 正音 創製의 序文에서도, 開口第一聲으로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을 指摘했던 것이다.

世宗大王과 世宗을 보필한 學者들은 中國 音韻에 關하여 깊은 素養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國語의 文字化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音韻字의 知識을 充分히 活用하여 韓土 漢字音의 音素를 分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國語의 音素分析으로 나아가 子音 17字와 母音 11字로 都合 28字의 音韻文字를 만들어 내었다. 「原本訓民正音」에 의하면 單音 28字는 아래와 같다.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如蚪字初發聲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ㆁ	牙音	如葉字初發聲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並書如草字初發聲
ㅌ	舌音	如吞字初發聲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ㅍ	唇音	如鷲字初發聲	並書如步字初發聲
ㅂ	唇音	如漂字初發聲	
ㅃ	唇音	如彌字初發聲	
ㅅ	齒音	如卽字初發聲	並書如玆字初發聲
ㅆ	齒音	如椋字初發聲	
ㅈ	齒音	如戊字初發聲	
ㅊ	喉音	如搥字初發聲	
ㅌ	喉音	如虛字初發聲	並書如洪字初發聲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ㄹ	半舌音	如閭字初發聲	
ㄺ	半齒音	如臙字初發聲	

· 如吞字中聲

一 如卽字中聲

段階인 것이요, 다음의 段階는 이를 受容하고 發展시키는 段階인 것이다.

먼저 漢字 漢文의 傳來의 段階부터 整理를 하여 보기로 한다.

現存의 史的 資料와 考古學 내지는 金石學的 資料들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할 때, 韓半島의 北部에 箕子朝鮮이 成立되던 西紀前十一世紀頃부터 韓半島의 北部에서는 漢字와 漢文에 接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箕子朝鮮을 일으킨 主體의 族元問題가 어떻든, 이 王朝은, 漢土에 있어서의 殷과 周의 交替期에 漢土 內部에서 밀려나온 集團勢力의 定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箕子集團의 東來 過程에서 漢字도 傳來되었을 것임은 疑心할 바가 없다. 이는 秦篆이 陰刻되고 있는 秦始皇代(232BC)의 武器인 秦文가 樂浪遺跡에서 發掘되고 있음으로써 뒷받침되고 있다.

이어 漢四郡의 成立(108BC)될 무렵부터는 韓土의 北部의 上流社會에서는 漢字가 많이 使用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것이 新羅까지를 포함한 韓土 南部의 上流社會에서까지 漢字·漢文을 表記生活에 日用하기는 빠르면 一·二世紀, 늦어도 二·三世紀頃이었다고 보아진다.

日本에서 漢字 漢文을 처음 接하게 되었던 것도 歷史的 資料나 考古學 내지는 金石學的 資料를 中心으로 檢討하여 볼 때, 日本으로 大量的 漢籍이 傳來되었다고 보이는 阿直岐 王仁(405AD)의 時期보다는 늦어도 一·二世紀 앞선 三·四世紀頃인 것으로 보아진다. 이것이 야마토(大和)를 中心으로 한 西日本 上流社會에서 그 使用이 漸次 盛하여지기는 阿直岐 王仁에 의하여 漢籍이 多量으로 傳來되고 經典에 대한 講議가 始作되던 五世紀初의 일이었다는 것으로 보아진다.

다음의 段階는 漢字 漢文의 利用과 그 受容方法의 發展에 關한 段階인 것이다.

이 受容 發展의 段階란 그리 單純한 것이 아니나, 이를 다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몇몇 段階로 壓縮시킬 수 있다고 본다.

1. 韓土式 漢文을 그대로 받아들인 段階
2. 土語의 語順에 따른 作漢文을 試圖하던 段階
3. 借字表記法으로 土語를 表記하던 段階
4. 漢字의 製字原理로 新文字를 만들어내던 段階
5. 表音文字에로의 發展을 꾀하던 段階
6. 新系統의 文字를 만들어 내는 段階

以上の 6段階로 集約시킬 수 있다.

1. 韓土式 漢文을 그대로 받아들인 段階

韓土에서나 日本에서나 漢文 受容의 첫 段階에 있어서는 漢字 漢文을 漢土에서 使用하던 方法 그대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아직 漢字의 訓讀法은 없이 音讀뿐이었고 構文法도 漢文文法 그대로였던 것임은 勿論이다. 이 段階란 韓土에서는 三國의 成立 以前으로 잡아 西紀前 一世紀까지로 보이며, 日本의 경우는 漢籍이 大量으로 傳來되던 五世紀보다 一·二世紀 앞선 三·四世紀頃까지로 보아진다.

2. 土語의 語順에 따른 作漢文을 試圖하던 段階

土語의 語順에 따른 漢字文이란 韓土의 資料로서는 이른바 誓記石體의 漢字文인 것이며, 日本

의 資料로서는 史部流의 漢字文인 것이다. 現存資料로 볼 때 韓土의 誓記石體란 新羅의 「瑞鳳塚 銀合杆銘」(451AD 推定)이 最古인 것이나, 이보다 一·二世紀 앞선 三·四世紀頃부터 試圖한 것으로 보이며, 日本의 史部流의 文體로서는 現存 最古의 「元興寺露盤銘」(596AD 推定)보다 一·二世紀 앞선 四·五世紀頃부터 試圖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借字表記法으로 土語를 表記하는 段階

借字表記란 漢字를 借用하여 土語를 記錄하는 方法을 말함인 것이다. 漢字의 讀法에는 이것을 音으로 읽는 音讀法과 訓으로 읽는 訓讀法 以外에는 생각할 수 없다. 音讀이란 漢字가 傳來될 때에 이미 지니고 있던 字音에 따라 읽는 법이거니와 訓讀이란 그 漢字가 지니고 있는 原義에 해당하는 韓土 또는 日本의 土語로 읽는 법인 것이다.

韓土에서나 日本에서 漢字를 받아들일 때는 그 첫 段階로서는 音讀만 하였던 것이나 다음에는 訓讀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音讀과 訓讀만으로는 온전한 土語의 表記가 不可能한 데서 音借와 訓借의 表記法을 創案해 버린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漢字를 가지고도 그 讀法은 크게 나누어서 音讀과 訓讀, 音借와 訓借 등 네 가지의 讀法이 可能해진 것이다. 이러한 讀法에 따른 表記法을 韓土에서는 吏讀 鄉札 口訣 등으로 불리었던 것이며, 日本의 경우는 이를 萬葉假名(monnyogana)으로 汎稱하였던 것이다. 이 借字表記法의 發達에 따라 奧妙하고도 纖細한 人間 情緒의 表出인 歌謠까지도 表記해낼 수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段階에서 記錄된 歌謠가 韓土의 鄉歌인 것이요 日本의 記紀歌謠 및 萬葉歌謠인 것이다.

4. 漢字의 製字原理로 新文字를 만들어 내던 段階

韓民族과 日本民族은 前後하면서 漢字를 輸入하여 表記生活에 利用하여 왔던 것이나, 漢字의 劃數가 많아서 筆記하기에 煩雜스러웠던 文字에 대해서는 略字化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어떤 特殊한 觀念이나 思想을 表記하려고 할 때 既存의 漢字가 없다고 判斷되었을 때는 既存의 漢字를 새로 結合시킨 合字를 만들어 使用하기도 하였으며, 그래도 既存의 漢字가 없다고 判斷되었을 때는 새로운 文字, 이른바 國字를 만들어 使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合字도 國字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既存의 漢字를 새로 結合한 경우라는 差異가 있을 뿐이다. 國字라 해도 漢字의 製作原理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韓土와 日本의 國字는 相通함이 많았다고 하겠다.

5. 表音文字에로의 發展을 꾀한 段階

漢字의 借字表記는 漢字의 原義를 離脫한 表記法이라는 意味에서 이미 表音文字化의 첫 段階라고도 볼 수 있으나, 韓土의 表記體系에서도 略體의 口訣에 이르러서는 日本의 假名(kana) 文字와도 相通하는 一種의 表音文字로 불리울 段階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國字로까지는 發展시키지 못한 채, 李朝에 와서 消滅되고 말았다. 이와는 달리 日本에서는 記紀歌謠와 萬葉歌謠를 表記하던 萬葉假名(mannyogana)에서 보인 借字表記法에서 韓土의 口訣의 用法과 같은 宣命書(senmyogaki)의 用法과 訓點의 用法을 발전시켜 日本의 固有文字인 假名(kana) 文字에로까지의 發展을 본 것이다. 假名(kana)은 이를 片假名(katakana)과 平假名(hiragana)으로 나눌 수 있거니와, 片假名이란 漢字의 略體化에서 온 것이니, 韓土의 略字 口訣과 同一한 方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平假名이란 漢字의 草體化에서 온 것이다. 이 片假名·平假名이 모두 漢字體에서 온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日本의 경우는 漢字를 表音文字(音節文字)化하여 오늘의 國字에로까지 發展시킬 수 있었음에 比하여 韓土에서는 漢字의 表音文字의 使用이 吏讀 鄉札을 거쳐 口訣에서 消滅해 버린 까닭은 韓語의 音韻이 複雜하고 多樣해서 이를 빠짐없이 表記해낼 수 있는 音節文字에로의 發達과 이의 體系化가 이루어지지 못한 段階에서 새로운 系統의 文字인 訓民正音, 곧 한글이 創製되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6. 新系統의 文字를 만들어내는 段階

여기 新系統이라 함은 漢字와는 關聯이 없는 系統이란 뜻이다.

漢字의 表音文字의 表記法은 吏讀 鄉札에서 試圖하여 보았으며, 이의 略體化에 의한 國字化의 契機도 略體口訣에서 그 可能性이 어느 程度 窺보였으나 그 以上の 發展을 보지 못했던 15世紀에 이르러 韓民族은 漢字와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새로운 系統의 音韻文字인 訓民正音, 곧 한글을 創製해 내기에 이른 것이다.

韓語는 日本語와는 比較가 될 수 없으리만치 音韻이나 活用이 複雜 多樣的 것이나, 새로 만들어진 韓民族 固有의 文字인 한글은 그 母音 11字와 子音 17字의 多樣的 合用으로 表記할 수 없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文字의 組織과 構成에 있어서도 가장 科學的인 文字로 認定을 받고 있는 것이다.

以上 韓日 兩民族이 漢字·漢文에 接한 初期 段階에서부터 이를 受容하고 發展시킨 諸段階를 比較 考察하여 보았거니와 上揭 諸段階의 順位가 반드시 漢字의 受容과 發展에 따른 年代記的 順序는 아니다. 그리고 韓土는 日本에 比하여 漢字의 本고장인 漢土와 陸續 近接되어 있는 事情으로 漢字·漢文의 輸入과 受容 發展에 있어서도 大體로 二世紀 또는 一世紀 앞서 있었음은 事實이나 그 受容方法은 서로 相通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韓土와 日本이 近接된 이웃이라는 事實 以上으로 兩民族의 國語의 近親性에서 온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면서도 日本民族은 漢字의 略體化·草體化로 이루어진 片假名(katakana)와 平假名(hiragana)를 國字로 日用하고 있는 터이지만, 韓民族은 漢字와는 系統이 다른 訓民正音, 곧 한글을 새로 만들어 日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韓國語의 音韻이 日本語의 그것에 比하여 아주 多樣複雜한 것이어서, 이러한 韓國語 表記를 위해서는 새로운 音韻文字의 創製가 不可避했던 것이다.

Summary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and Japan's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System (Ⅱ)

Yang Chung-hae

Korean and Japanese people were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when they tried to represent their own languages by means of extraneous writing system and characters which they imported from China. Chinese characters were created to represent the isolated language of the Chinese people, while Korean and Japanese people used agglutinative languages. Chinese writing system is ideographical, but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have their own system of sounds which is independent of the Chinese language.

Korean and Japanese people made many kinds of attempts to overcome the heterogeneous quality of language, and they came to invent devices which can represent their songs by means of the sound and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Such devices took shape in the Korean song called Hyangga and the Japanese song called Kikikayo and Mannyokayo.

The writing system which recorded Hyangga was called Hyangchal or Idoo, and that which recorded Kikikayo and Mannyokayo was called Mannyō-kana.

Japanese people developed the writing system of Mannyō-gana and went so far as to invent their own phonograph called kana. But Korean people could not invent such phonograph as kana of Japanese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y must have the wisdom to create their own phonograph, called Hunminjungum or Hangul, whose origin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nese characters.